Weekly 공감

2012.04.25 NO.156
gonggam.korea.kr


COLORCODE®
칼라코드팝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5.12~8.12

# 서민금융 더 늘려야 한다

**심지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민들의 사금융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인하여 제도권 서민금융이 위축된 것이 이유 중 하나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는 7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합법 대부업체 이용 가능자는 2백47만명, 나머지는 불법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우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였고, 마침내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 추진방안은 ①피해신고 및 특별단속 ②피해구제 ③제도개선 ④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다. 정부의 의욕적인 척결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피해구제는 금감원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2차 상담을 한 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자에 대한 처방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실태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수방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대출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제시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 '대출사기를 피해구제 대상에 추가',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과 국제전화 여부 표시 의무화' 등은 바람직한 시도로 보이며 지속적인 실천을 기대한다.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리규제를 줄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금융거래는 신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금리규제로는 시장왜곡을 막을 수 없다. 금리인하는 저신용자의 신용은 높이지 못한다. 가계부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도 가계신용관리 강화보다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교육은 사후 처방일 뿐이며 사전 처방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중·고등학교의 정규과정에서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신용은 남이나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쌓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불법업체 척결방안 외에도 금리규제를 줄이고 시장원리에 따르는 절충안이 서민금융 정책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는 지난해 39퍼센트로 인하된 최고금리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신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금리규제 정책으로는 시장왜곡을 막을 수 없다. 금리인하는 저신용자의 신용은 높이지 못하고 수요만 증대시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 상황이다. 우리 가계부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도 가계신용관리 강화라는 수량조절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금리인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G

# Contents

156호
2012.04.25 통권 257호

**표지 이야기** | 최수진씨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입니다. 6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수진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틈틈이 자신의 한국 적응 경험을 공유하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낯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최수진씨는 언니이자 친정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사진 · 김잔듸 기자

##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 서민생활 안정성 높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리대금업은 죄악으로 여겨왔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가난과 어려운 사정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다. 이들을 향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관계 부처가 모두 나섰다.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도 크게 개선했다.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왕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다각화했다.

**이명박정부 4년 성과 QR코드로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이명박정부의 경제 4년 주요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대한민국' 모바일 웹 QR 코드입니다.
URL : 4years.widget.go.kr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4.2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0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를 읽고

### 경주 자전거 여행기사 반가워

일주일 전 경주로 여행을 다녀온 터라 154호 감성여행 경주 자전거 여행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주의 곳곳에 펼쳐진 유적지와 맛집을 돌아다녀 봤는데 벚꽃 개화 시기 이전에 갔기 때문에 벚꽃을 보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경주여행에서 만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유물과 경주 특유의 음식은 더할 나위 없이 최고였습니다. 이제 벚꽃이 만발할 텐데 꽃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경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에는 남자친구와 같이 가야겠습니다.

**박혜선(25 · 사회복지사 · 전남 목포시 복만동)**

### 우리 정부 대북 전략 믿음직스러워

153호 이명박정부와 사람들 '적 도발엔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 결의'를 잘 읽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북한의 도발이 8분의 1로 줄었다고 하니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우리나라도 단호하게 대응해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해야 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만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정순(49 · 주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활성화된 전통시장 모습 기대

154호 '전통시장 싼 가격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기사를 잘 봤습니다. 평소 할인상품을 사거나 대량 구매를 할 때는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한 것 같아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도 대표상품 가격공시제가 생긴다고 하니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장여행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하니 아이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는 토요일에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물건도 살 겸 전통시장 나들이를 다녀와야겠습니다.

**김여중(51 · 회사원 · 경기 평택시 청북면)**

### 소외 청소년 도운 곽종문 교장 기사 감동

155호 화제의 인물 곽종문 한겨레중고교 교장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야학을 설립하는 등 무려 30여 년간 소외 청소년을 도우셨다는 이야기에 놀라웠습니다. 특히 소년원 아이들을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새출발을 도우셨다는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곽종문 교장 선생님처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겠습니다.

**박영재(25 · 학생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 독자 인터뷰

### "나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4대강 즐기기 정보 시의적절"

엄경숙 (49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웃 지은이 엄마가 '우리 딸아이 기사 보세요' 하며 살며시 〈위클리 공감〉을 펼치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더군요."

엄경숙씨는 삼 남매를 키우며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주부다. 그는 얼마 전 이웃들과의 모임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사가 실린 〈위클리 공감〉이 화제가 됐다고 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지원요원으로 참석한 이웃의 딸 기사가 〈위클리 공감〉에 실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NGO에 배송된 〈위클리 공감〉을 가끔 읽었는데, 이웃들과 함께 접하게 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155호에서 기억에 남는 기사를 꼽아주세요.**

"수변공원, 강변 캠핑촌 아이들 웃음소리 넘친다'가 가장 관심이 가고 기억에 남아요. 점차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많이 다루어 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강을 찾아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위클리 공감〉 155호에도 '아름다운 도전'과 다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사의 밝음에 가려져 너무 가볍게 다루어진 거 같기도 해요. '도가니'로 들끓었던 그날 이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회와 정부를 믿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을 그냥 내어놓아도 되는지, 정부는 그걸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위클리 공감〉을 더 자주 챙겨 읽으려고 해요. 인터넷과 대중매체만을 통해 섭취했던 정보 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판단의 틀을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퀴즈

2012여수세계박람회에는 축구스타 박지성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유명 인사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람은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는 가수로 여수엑스포의 첫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008년 'Lost and Found'라는 미니 앨범으로 데뷔했으며 주요 히트곡으로는 '좋은 날', '너랑 나' 등이 있습니다. '엑스포둥이'라고 불리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삼촌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퀴즈 정답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1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여수엑스포 입장권 3매를 보내드립니다.**

## 알림 2012 경찰청 안보사랑 콘테스트

경찰청이 2012 경찰청 안보사랑 콘테스트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부문은 시청각 부문과 문예 부문으로 나뉜다. 포스터와 광고영상, 수기 · 소감문 등 각 부문별 관심 있는 분야에 참가하면 된다. '안보홍보'라는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각 작품분야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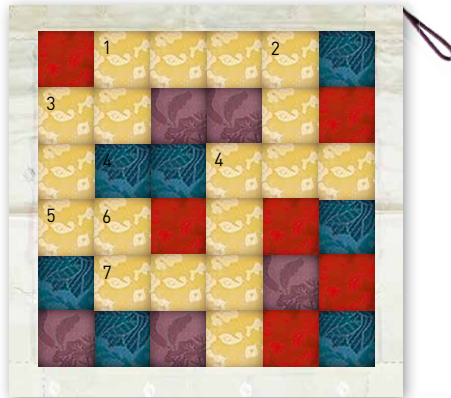
특히 포스터와 광고영상은 독창성이 강조되고 문예부문은 주제연관성이 중요하다.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 참가자는 경찰서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해도 된다. 접수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자격** | ①안보사랑 포스터, 안보사랑 광고영상 – 대한민국 전 국민(개인 및 팀 모두 가능) ※경찰관도 참가 가능, 일반 국민과 동일 조건 심사
②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 – 북한이탈주민
③안보현장체험 소감문 – 안보현장체험 참가 학생(초 · 중 · 고교생)
※경찰청 견학 등 단체참가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체험한 자도 제출 가능

**응모주제** | ① 안보사랑 포스터 – 국가안보의 중요성, 평화통일염원, 전쟁과 테러, 국가안보를 지키는 보안경찰 등
② 안보사랑 광고영상 –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담은 다양한 주제 가능
③ 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 – 재북 · 탈북과정의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삶 체험기 등
④ 안보현장체험 소감문 – 안보현장(연평도, 판문점, 땅굴 등) 체험 소감

**시상내역** | 각 분야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상장 및 상금 시상

**응모일정** | 5월 31일까지

**문의** | **경찰청 보안1과 ☎02-3150-1484 홈페이지 www.anbosarang.co.kr**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9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가로

1.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 "정부는 한국계 김용 다트머스 대학 총장의 OOOO(WB) 총재 선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표적 지식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분야에서 OOOO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 배를 부리는 사람. 뱃OO.
4. 옛날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5. 양탄자. 카펫.
7.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소리.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으로 나뉘죠.

### 세로

1. 잔손을 많이 들여 정밀하게 만드는 것.
2. 가는 목적지. "OOO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떠나거라."
3. 사채업자가 사사로이 하는 금융. "정부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OOO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4. 봄에 파랗게 싹이 튼 보리밭입니다. "제주도 가파도나 전북 고창의 OOOO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6. 단 한 번에 승패를 가르는 판.

**〈Weekly 공감〉 154호(4월 1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신생아 **3** 쿠웨이트 **5** 개나리 **6** 도예 **8** 움큼

**세로** **1** 신춘 **2** 아쿠아리움 **4** 이어도 **5** 개구리 **7**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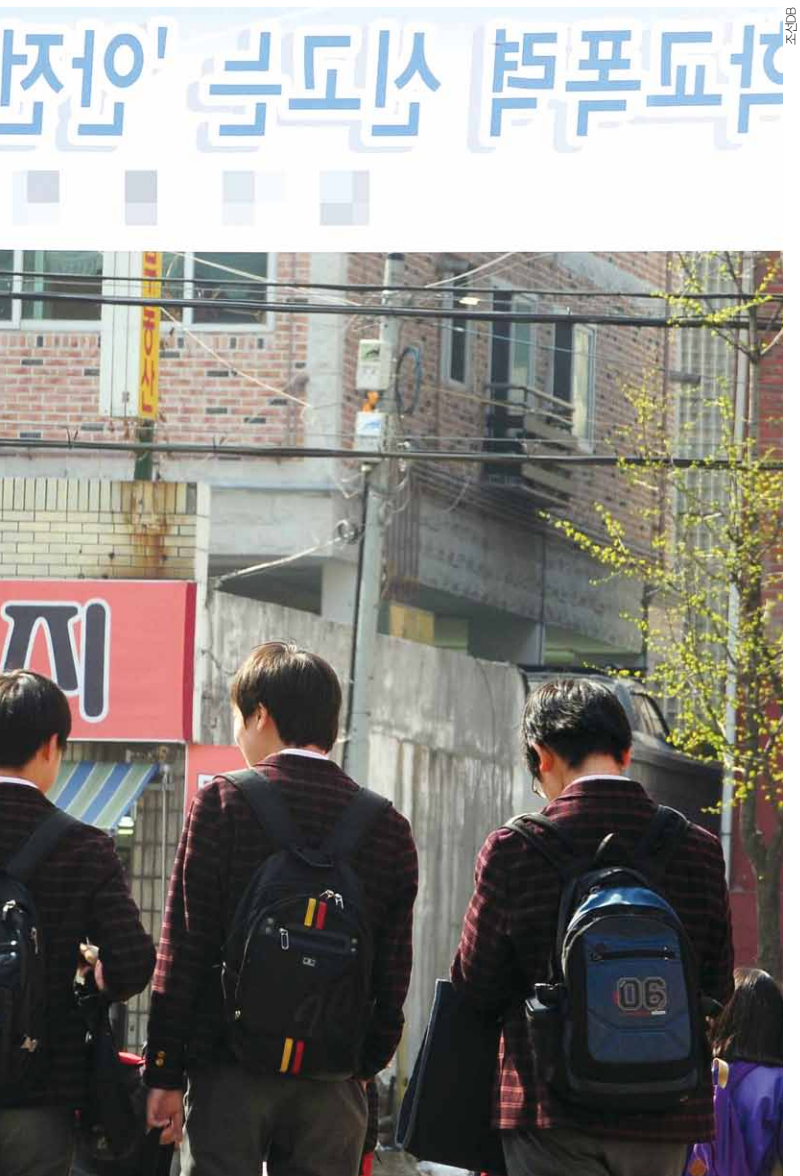
**〈Weekly 공감〉 154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미숙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이상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이현주 · 대구시 서구 내당2 · 3동
장정우 ·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채해림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 초중고생 12퍼센트 "학교폭력 경험했다"

## 5백59만명 실태조사 공개… 24.5퍼센트는 "일진학생, 있거나 있다고 생각"

올해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4월 20일에는 교과부 홈페이지에, 4월 27일에는 학교별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된다.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DB

교육과학기술부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12.3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의 24.5퍼센트는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교과부는 이 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초등학생은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왕따대물림 등은 심각한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심해서 했다" "요즘 유행하는 놀이라서 했다" "그게 왜 폭력이냐"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무심코 어른을 따라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진'이라고 부르는 폭력서클이 초등학교에도 퍼져 선후배 사이에서 돈을 뺏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주로 특활이나 급식시간, 방과 후 등 교사가 없는 때 많이 발생했다.

### 분석결과 활용방안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중학생은 폭력의 정도가 더 심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성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힘이 약한 학생을 소위 '빵셔틀'로 정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도 빈번했다.

폭력서클 또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 금품상납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며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장애학생을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며 놀리거나 집단따돌림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부터 이어진 폭력 행위가 여전히 이어졌다. 특히 폭력서클은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운영되면서 훨씬 폭력적이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회로 진출하면서 성인폭력조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기숙사 내에서 서열을 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백5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주관식 문항에 응답한 학교폭력 사안에 일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관식 응답문항 일체를 입력 즉시 경찰청에 인계(2012.2.7~3.4)하고, 경찰 주관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시로 통보했다.

지난 3월 14일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평균 회수율, 피해경험률, 피해유형 및 장소 비율, 일진인식률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 공개했으며, 그동안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활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그리고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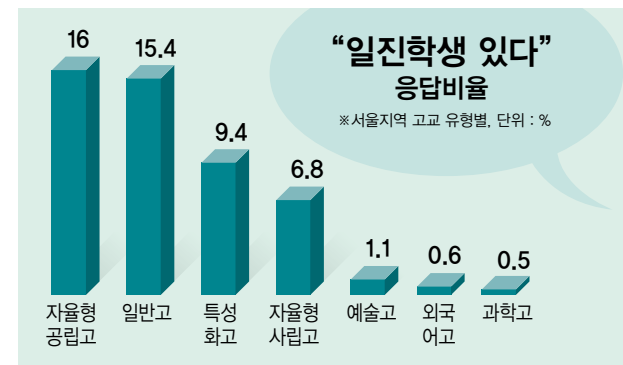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는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총 1만1천3백63개교의 사례를 공개한다. 지난 4월 20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4월 27일부터는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결과 공개에 앞서, 교과부는 4월 19일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서를 보냈고, 4월 20~23일 단위학교에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5월중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선정

향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및 사안별 처리방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안별 조치를 실시한다.

이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에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며 진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보고하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있는 학교폭력 실태 정보를 고려해 5월 중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인력의 우선지원, 전문가의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5월부터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진경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교과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일진 등 폭력서클이 있다고 추정되는 학교를 일진경보제 운영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 해체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화

한편 조사 설문지의 회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학교 1천9백6개교 및 신설학교(2011년 9월 1일 이후 개교), 대안학교·예술학교·특수학교 중 회수율이 0퍼센트인 학교(공개 학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포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경위조사 및 실태조사 재실시가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경위조사 후 실태조사 관련 우편물 발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발송을 지연한 경우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 주관으로 대상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교과부에 5월 말까지 보고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전국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계기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제도화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8~9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방법을 우편조사 방식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개선해 실태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G

글·박영철 기자

대우조선해양로봇관이 지난 4월 17일 준공식을 겸해 시범적으로 공개되었다. 로봇 축구 세계 챔피언 다윈 오피가 3대3 축구 경기를 펼치고 있다.

# 인간을 닮은 최첨단 로봇 73대 '끼' 대결

## 한국·미국·영국·프랑스 참여… 다양한 공연에 관람객들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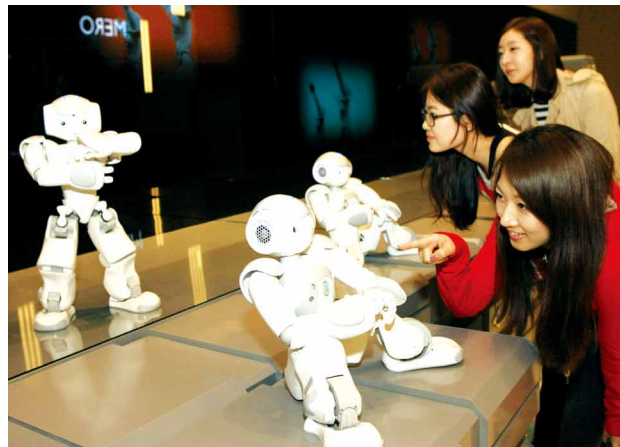
여수엑스포 주요 시설물들이 하나둘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스카이타워와 주제관이 이미 완공돼 준공식을 가진 데 이어 지난 4월 17일에는 대우조선해양로봇관이 로봇 관련 단체와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세계 최첨단 로봇 73대가 벌이는 갖가지 공연에 관람객들은 탄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대우조선해양로봇관(이하 해양로봇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팔등신 미모의 안내 로봇 '에버'가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관람객을 맞았다. 댄스 음성 감지 기능 로봇 '나오'는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에 맞춰 춤을 추고, 수십 가지 얼굴 표정이 가능한 '메로'는 립싱크를 했다. 그 한편에서는 로봇축구 세계 챔피언 다윈 오피(DARwin-OP)의 3대3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20여 대의 치어리더 로봇들은 응원단장 '데스피안'의 구호에 따라 현란한 응원 동작을 선보였다. 경기는 양팀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끝을 맺는가 싶더니 한 선수가 극적으로 골을 넣었다. 관람객들은 환호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좋아했다.

**2040년 미래 바다 탐사작업 연출**

지난 4월 17일 준공식을 가진 여수엑스포 해양로봇관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환상의 축제 마당이었다. 이날 준공식 참가자들은 이번 엑스포에서 선보일 73대의 최첨단 로봇을 모두 관람했다.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 영국의 응원대장 '데스피안', 프랑스의 춤꾼 '나오' 등 국내에 첫선을 보인 로봇들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6.5미터의 국내 최장신 로봇 '네비', 여전사 '에버', <타임>지 선정 2010년 세계 40대 발명품 중 하나인 '메로', 아쿠아리움에서 군무를 선보이고 있는 물고기 로봇 '피로' 등 국내파 로봇도 인기를 끌었다.

카이스트와 하버드 등 세계 3백개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NAO)'가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2040년 수중 6천미터의 심해에서 펼쳐지는 '해저 5 로봇'들의 해양자원 탐사 시뮬레이션도 한 편의 SF영화처럼 흥미진진했다. '해저 5 로봇'은 리더인 '네비'를 비롯해 용접 담당 '스파키', 채집 담당 '코올', 드릴 담당 '토네', 에너지 담당 '샤이니' 등이다. 이들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 심해 광물을 채굴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해양로봇관은 이외에 로봇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로봇 히스토리, 로봇 설계와 제작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로봇 랩(Lab)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중 로봇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신제품 로봇 발표회, 로봇 제작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관련 산학연이 힘 합친 결정체"**

대우조선해양로봇관은 대우조선해양(주)이 사업비 후원과 함께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로멜라(RoMeLa) 연구소 등이 함께 프로그래밍한 국내 최대 로봇 프로젝트다. 이날 로봇관을 관람한 이들은 "인간을 닮은 로봇들의 다양한 공연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각국의 로봇 기술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은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해양로봇관 사업은 시작부터 로봇 관련 산학연이 힘을 합친 결정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로봇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박람회 이후 로봇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로봇관은 로봇 설치 및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가며 5월 12일 여수엑스포 개장과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글·서철인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주덕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 "한국, 2020년 이전에 로봇 선진국 됩니다"

**해양로봇관을 관람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시 공간이 2천3백제곱미터(약 7백평)에 이르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로봇 전시로는 국내에서 규모가 최대인데, 실제로 보니 더 욱 넓어 보여 웅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40년 수중 6천미터 아래서 로봇들이 광물을 캐는 장면을 형상화한 심해저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스나 석유 탐사에 필요한 해양 구조물 분야에서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040년이 되면 실제로 인간을 대신해 심해를 탐사하는 로봇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리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입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이 포진해 있죠. 로봇은 융화산업이라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발전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한국은 융화산업이 가능한 몇 개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은 202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독일,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2002년부터 10년 동안 로봇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요. 지금까지 1조원가량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드는 등 로봇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후원사인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삼성테크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KT, 한국야쿠르트 등이 이 사업에 뛰어들거나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더군요.**

원래 로봇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과천과학관에 로봇 상설 체험관을 오픈했는데, 5개월 만에 2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해양로봇관은 이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크고 훨씬 흥미진진한 전시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엑스포 입장권을 예매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보고 싶은 전시 1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압니다.

여수엑스포 빅오(Big-O)의 핵심 시설인 디오(The O)는
엑스포 기간 내내 밤마다 화려한 멀티미디어쇼를 선보인다.

조선DB

각종 전시관이 들어선 박람회장 전경. 이달 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다.

# 여수는 지금… 환호만 남았다

"지금 여수는 예행연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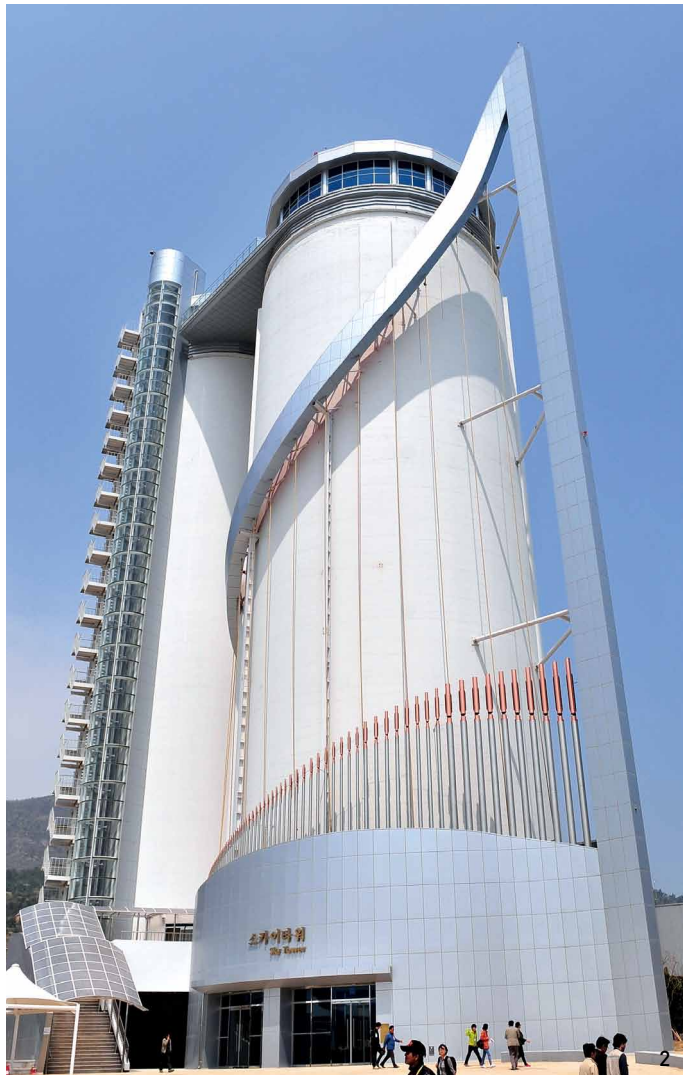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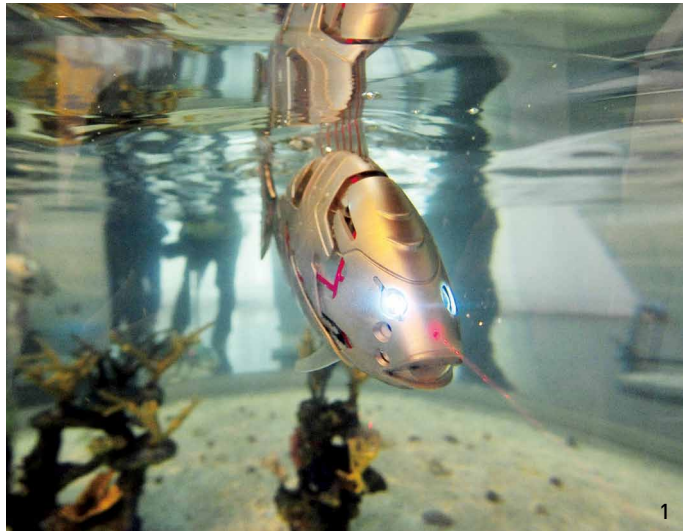
여수엑스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5월 12일 개막.

무역선이 한가롭게 오가던 여수신항은 글로벌 최첨단 신기술의 경연장으로 탈바꿈했다. 신항 부지 내 박람회장 25만제곱미터에 들어선 주제관·국제관·한국관 등 전시·특화시설 80개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관람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서울 코엑스보다 3배 큰 국제관 건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여수엑스포는 볼거리도 즐비하다. 박람회장 중앙에 위치한 '빅오(Big-O)'의 핵심 시설인 '디오(The O)'에서는 낮에는 분수쇼가, 밤에는 분수와 무대조명·레이저·불꽃·화염·영상이 어우러진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진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은 필수 관람 코스다. 67미터 높이의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는 박람회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 스카이타워를 통해 울려 퍼지는 파이프오르간의 뱃고동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오르간답게 반경 6킬로미터까지 소리가 퍼져나간다.

여수엑스포는 바다내음이 물씬 난다. 바다를 주제로 한 역대 네번째 박람회이기 때문이다. 엑스포는 당대 최고 기술들의 만남의 장이다. 여수엑스포에서는 친환경 해양 테크놀로지가 대거 등장해 희망찬 지구의 미래를 가늠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엑스포는 자녀 교육과 가족 나들이 용도로도 손색이 없다.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G

글·박영철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1** 감성돔 모양의 물고기로봇 피로가 수족관 안을 헤엄치고 있다.

**2** 시멘트 저장 시설을 활용한 67미터 높이의 스카이타워. 하프 모양을 형상화한 외부에는 뱃고동 소리를 내는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었다. 스카이타워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3** 미래에 해양자원탐사 업무를 맡게 될 로봇 '네비'가 2040년 해저 6천미터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펼쳐보이고 있다.

**4** 전남지방우정청 직원 2백여 명이 지난 4월 16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홍보깃발과 스티커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홍보 퍼레이드를 벌였다.

**5** 일본 후쿠오카에서 여수엑스포장까지 3시간45분 만에 주파하는 쾌속선 비틀호가 지난 4월 17일 일본 기자단과 여행사 관계자 60명을 태우고 여수엑스포 연안여객선 부두에 입항했다.

지난 22일 개막한 제6회 투르 드 코리아 대회는 29일까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다. 지난해 4월 투르 드 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충북 충주를 출발해 경북 영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 투르 드 코리아, 전국일주 은빛 레이스

## 아라뱃길 정서진 광장서 스타트… 22일엔 자전거대축전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은빛 자전거 물결이 넘친다. 지난 4월 22일 자전거대축전과 함께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도 열렸다. 오는 29일까지는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2'가 이어진다. 인천 아라뱃길 정서진광장에서 출발한 선수들은 전국을 돌아 오는 29일 경기도 하남에 골인하기까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다.

'자전거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2일 인천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제4회 자전거대축전이 펼쳐졌다. 이날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개통 행사와 함께 국내 유일의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 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2)'가 8일간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축전 행사에서는 팻 맥퀘이드 국제사이클연맹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와 시민, 자전거 동호인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서진 광장부터 아라김포터미널까지 조성된 18킬로미터의 아라뱃길 자전거길을 함께 달렸다. 정서진광장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출발점이다.

이날 축전은 수계별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지역마다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다. 인천에서는 인천시립무용단 공연과 이색자전거 퍼레이드 등 공식행사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클래식자전거 전시회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날 총연장 1천7백57킬로미터에 이르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됐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아라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새재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금강 자전거길 등으로 연결돼 있다.

### 4대강 수계별로 전국 10곳서 축전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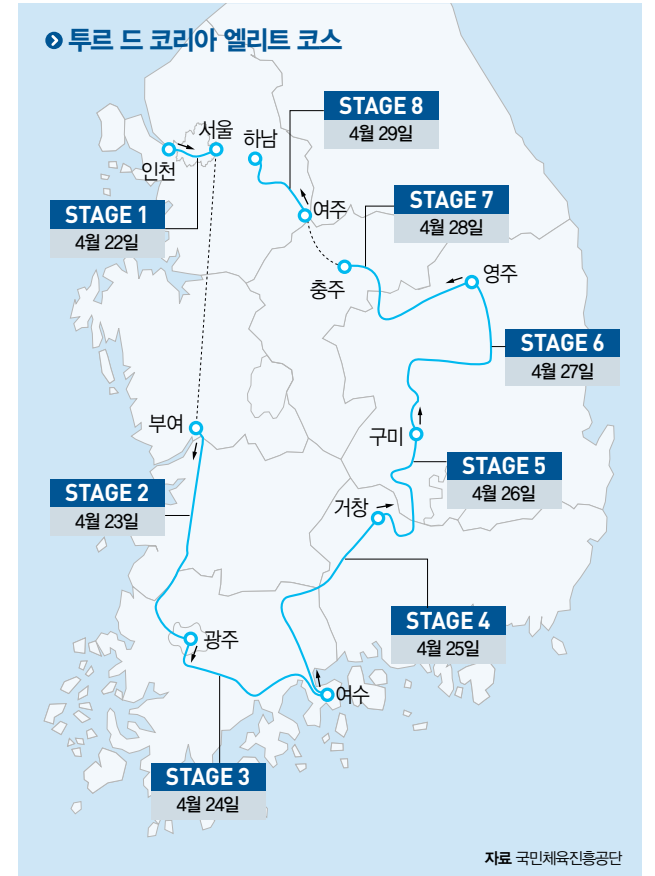
수계별로 자전거 퍼레이드도 펼쳐졌다. 한강 수계에선 남양주(팔당수력발전소~여주 이포보)와 충주(세계무술공원~조정지댐)에서, 금강 수계에선 공주(공주보~부여 백마강교)와 군산(금강하구~익산 성당포구)에서, 영산강 수계에선 광주(승촌보~담양 메타세쿼이아길)와 나주(죽산보~무안 영산강하구둑)에서 퍼레이드를 벌였다. 낙동강 수계에선 상주(경천섬~구미 구미보), 대구(강정고령보~달성보), 함안(함안1지구~밀양 하남2지구), 부산(을숙도~양산 낙동강교) 등 4곳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자전거 축전과 더불어 개막한 'TDK 2012'는 오는 29일까지 인천, 서울, 부여, 광주, 여수, 거창, 구미, 영주, 충주, 여주, 하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8일 동안 총연장 1천1백킬로미터를 달리게 된다. 첫날인 22일에는 인천 정서진광장에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55킬로미터의 경주가 진행됐다.

전체 구간은 1천8백킬로미터로 엘리트 코스가 1천1백킬로미터, 스페셜 코스는 7백킬로미터이다.

엘리트 코스는 국제사이클연맹(UCI) 등록 선수로 구성된 국내·외 초청팀이 참가했다. 지난 대회 엘리트 단체종합 우승을 차지한 '팀 타입 원-사노피(TEAM TYPE 1-SANOFI·미국)'와 국내 1위 금산인삼첼로팀 등 전 세계 내로라하는 22개 사이클팀(해외 14개국 18개 팀, 국내 4개 팀) 2백16명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올해 대회는 프로페셔널 콘티넨털팀이 기존 1팀에서 3팀으로 늘어나면서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총 상금도 3억원으로 늘어났다. 프로페셔널 콘티넨털팀은 국제사이클연맹이 분류한 4개 등급 가운데 프로투어팀 다음의 등급으로 '투르 드 프랑스'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팀들이다.

국내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 '꿈의 무대'로 불리는 스페셜 코스는 '강진 전국도로대회'와 같은 프리테스트를 통과한 동호인 팀으로 주로 구성됐으며, BMC팀 등 국내·외 23개 팀 4백46명이 참가해 7백킬로미터 구간에서 프로 선수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 엘리트 코스선 국내외 22개 팀 2백16명 경쟁

지난해 미시령, 대관령 힐클라임대회에서 미니벨로 부문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이경은(37)씨 등 여성 참자가들과 산악자전거(MTB)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앤드루 존(40·미국) 씨를 비롯해 주한외교관, 영어학원 강사, 미군 등 다양한 직업의 외국인들도 대회에 참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자전거 타기"라며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녹색성장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전거 타기를 보다 더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G

글·손수원 기자

투르 드 코리아 www.tourdekorea.or.kr

# "핀란드 같은 10년 이상 장기플랜 세우자"

## 예산 · 인력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대책 세워야

몇 년 전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엔 어린 학생들이 성적이나 학교폭력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도 어렵지 않게 접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42.6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자살률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이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자살이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일러스트 · 이철원

명문대를 졸업하고 잘나가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며 예쁜 신부까지 아내로 맞이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A씨.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살고 있던 그였지만 어느날부터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아졌다.

직장에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는 남들에겐 A씨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사실 그에겐 큰 걱정거리였다. 예전 같았으면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A씨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자 급기야 A씨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보다 못한 아내는 A씨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다.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낮추는 것 시급

사실 그에겐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누나가 있었다. 자존심 강한 A씨에겐 '정신과 환자'인 누나는 부끄러운 존재였다. 또한 A씨는 늘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터라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정신과에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아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다. 이런 일이 있은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A씨의 이야기가 생생히 떠오르는 건 결국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이야기를 수개월간 들어주고, 위로해 주던 아내는 누군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남편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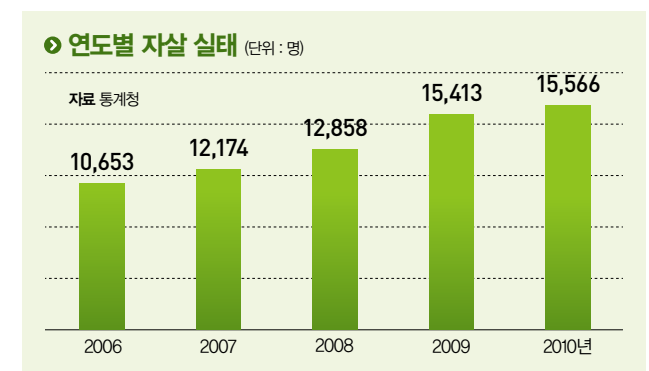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 있는건 '그가 전문치료를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자살은 주변인에게 오래도록 상처를 남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5천5백66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한 꼴이다.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자살 혹은 자살시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많게는 4조9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4년과 2008년에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적절한 예산투입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마련된 대책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자살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더 방치할 수는 없다.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자살 없는 사회 만들기 중점 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살예방 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과 적절한 예산, 인력의 지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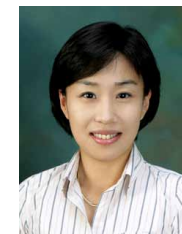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며 느끼는 것은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살예방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 일이다.

두번째는 만성적인 신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노인층 등 우울증에 취약하거나 자살률이 높다고 알려진 고위험군을 선별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 성공적인 자살예방 정책 위한 걸림돌 제거를

마지막으로는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관찰하는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르던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들의 자살이 늘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운 대책이 자살예방이 아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살이 문제라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직면하기 싫어하고, 자살이 과연 예방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 성공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한 핀란드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인적·물적 자원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기대해 본다. G

글 · 이유진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장 · 가천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건강한 사회 만들기 홍보영상

### "모두 같이 보고 해결책 함께 마련해요"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에서는 지난해부터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30분에 1명씩 자살, 하루에 교통사고로 15명씩 사망, 1년에 인공임신중절이 19만 건, 게임 과몰입률 6.5퍼센트, 도박유병률 6.1퍼센트 등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며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호소한다.

홍보영상물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이나 유튜브 메인페이지 검색창에서 '건강한 사회'로 검색.

# “지진 발생 때 대피요령 미리 알아둡시다”

## 지진·지진해일 대피훈련 4월 26일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서 실시

지난해 발생한 일본의 지진해일을 통해 훈련과 경보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비해 4월 26일 전국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실시되는 이번 대피훈련 중 울리는 재난위험경보는 민방공공습경보와 경보음이 다르고 대피방법도 다르다.

‘4월 26일 오후 1시55분, 전북 무주군 적상면 남서쪽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2백60여 명의 사상자와 6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만6천여 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고 영광원전 냉각기가 손상을 입었다….’

당연히 가상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의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하고자 4월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이번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민방공과 경보음·대피방법이 다른 재난위험경보

이번 대피훈련이 시작되어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실내에서는 잠시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진동이 끝나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실전 같은 훈련만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지난해 5월 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LG R&D센터에서 열린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인적재난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실외에서는 가방 등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낙하물 위험이 없는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한 다음 지진재난 방송을 청취해야 한다.

재난위험경보는 민방공공습경보의 경보음과 대피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사전에 대피요령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민방공공습경보음은 경보사이렌이 ‘5초 상승, 3초 하강’을 반복하며 3분간 울린다. 반면 재난위험 경보음은 ‘2초 상승, 2초 하강’을 반복하며 3분간 울리게 된다.

민방공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도, 지하철역, 건물 지하층 등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하지만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옥외 운동장이나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소방차량, 긴급구호차량 등 비상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다만,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피훈련 중에도 병원은 정상 진료하고,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운행차량과 철도·지하철도 정상운행한다. 이번 대피훈련 중 동·남해안 지역인 울산, 부산, 강원, 경북, 제주 등 5개 시·도의 해안가 34개 지역에서는 지진해일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일본 아키타현 혼슈 서쪽 근해에서 규모 9.0의 해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발생했다’는 가상 상황을 부여한 다음 4월 26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해안가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꼭대기 층으로 대피하고, 저지대 거주자로서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3층 이상 건물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 전국 초·중·고생 7백만명도 지진대피훈련 참여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지진해일이 도착하는 데에는 약 1시간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진해일 발생 시 기상청에서 관련정보를 분석해 소방방재청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지진해일경보를 발령하기까지 늦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지진해일경보 발령 후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등학생 7백만명도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재난안전교육을 받고 지진대피훈련에 참여한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연간 학사운영 계획에 민방위 시간을 반영해 훈련을 실시하고, 지진과 지진해일, 화재, 자연재해, 지하철사고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사이렌이 울리면 실제 대피훈련을 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이정술 과장은 “실전 같은 훈련만이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KBS 2TV의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코너 콘셉트를 패러디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개그맨 김원효, 김준현이 출연하는 ‘민방위비상대책위원회 UCC(4분, http://kr.youtube.com/김원효 민방위)’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국민들에게 이번 훈련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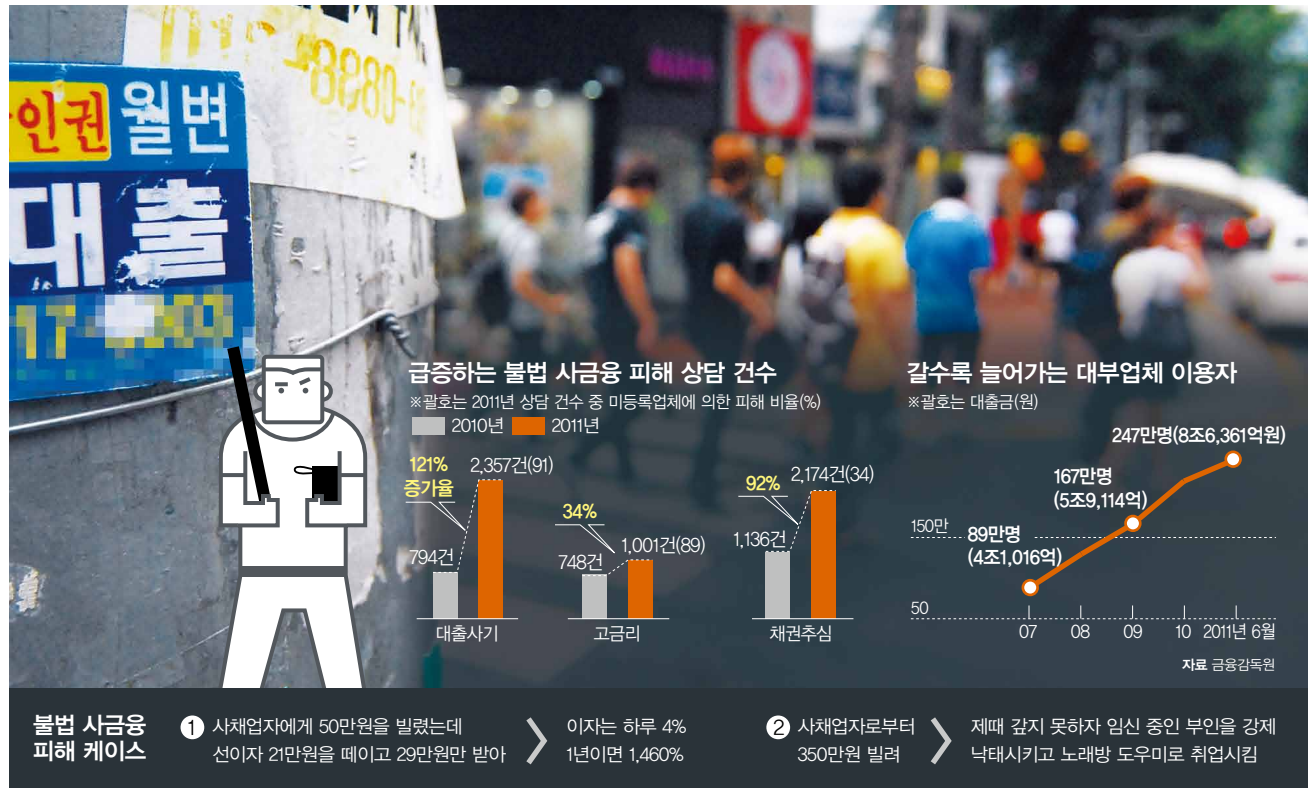
### 민방공공습경보와 재난위험경보 비교

| 구분 | 민방공공습경보 | 재난위험경보 |
|---|---|---|
| 경보 신호 | 5초 상승, 3초 하강 반복하며 3분간 지속 | 2초 상승, 2초 하강 반복하며 3분간 지속 |
| 발생 상황 | 적의 침공 |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 |
| 대피 방식 | 지하철역, 건물 지하층 등 지하로 대피 | 지진 : 공원, 운동장 등 넓은 공터로 대피<br>지진해일 : 높은 지역, 3층 이상 건물로 대피 |
| 훈련 발령 | 연 2회(8월, 10월) | 연 1회(지진 4월) |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 지진해일 발생 시 |
|---|---|
| • 집안에 있을 경우<br>–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br>–사용 중인 가스불 등을 끈다.<br>–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br>• 집 밖에 있을 경우 낙하물에 주의한다.<br>• 상가에 있을 경우 침착하게 행동한다.<br>•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 대피한다.<br>• 전철에 타고 있을 경우 고정물을 꽉 잡는다.<br>• 운전 중일 경우 도로 우측에 정차한다.<br>•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대피한다.<br>• 부상자가 있을 경우 서로 협력해 응급구호를 한다.<br>• 피난은 마지막 수단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화한다.<br>• 유언비어를 믿지 말고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 •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도달<br>•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 발생<br>• 지면의 심한 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수분 이내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br>•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br>•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없다면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한다.<br>•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안의 낮은 지역에 가지 않는다. |

# 불법사금융 뿌리뽑아 서민의 눈물 닦아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리대금업은 죄악으로 여겨졌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가난과 어려운 사정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다. 이들을 향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관계부처가 모두 나섰다.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도 크게 개선했다.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왕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다각화했다.

# '사회의 독버섯'…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 검찰·경찰 등 1만여 명 투입해 불법사금융 소탕 나서

**우리 사회에 '독버섯'이 크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불법사금융이 그것이다. 이들은 살인적인 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 불법사금융이 발붙일 여지까지 제거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1 경상남도 통영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의 속은 속이 아니다. 4년 전 빌린 빚 때문이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지역의 대부업자에게 1억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율이 높았지만 다른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빌렸다.

사채의 무서움은 바로 나타났다. 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었다. 4년 동안 A씨가 대부업자에게 갚은 돈은 무려 4억원에 달한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채업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2 서울에 사는 B씨는 잠을 이루기 힘들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편하게 잠이 들었다. 한 달 전 한 사채업자에게 빌린 50만원이 문제였다. 50만원을 다 받은 것도 아니다. 선이자만 21만원을 떼 손에 쥔 것은 29만원에 불과했다.

이자는 하루 4퍼센트, 단순 계산해도 1년이면 1천4백퍼센트가 넘는다. 50만원을 빌리고 1년에 이자만 7백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대출사기,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이 기승이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6천여 건이던 상담이 2010년 1만3천여 건, 지난해 2만5천여 건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했다.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위축 여파로 저신용층과 청년, 서민 등 금융 수요가 급증했지만 제도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가계신용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과 사채 등 비제도권 자금 조달이 증가했다.

### 사금융 피해상담 매년 2배씩 증가

문제는 대부업 자체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제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빚 독촉도 서슴지 않는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형국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척결'을 선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7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대대적인 '척결'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투입되는 인력만 1만1천5백여 명에 달하는 '대작전'이다. 김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감원 안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고처리반은 피해신고를 종합·분석해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수사의뢰를 총괄적으로 조치한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지검 등 5개 지검은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했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1천6백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피해구제도 시행한다. 먼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감원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을 통해 정밀상담을 진행한다. 전체 상담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컨설턴트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업 자체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고 제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빚 독촉도 서슴지 않는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척결'을 선언했다.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부당이익을 취한 대부업자의 초과이익은 환수하고 폭행과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과 신용회복 지원은 강화한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이 소진되면 추가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엔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의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금리보다 높은 불법적인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취한 대부업자의 초과이익은 환수한다. 초과이익 반환소송을 돕는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 불법추심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 금지

폭행과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불법추심을 한 업체를 집중단속하고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사기를 차단할 방안도 추진한다. 전단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키고 금융서비스 이용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대부업 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1백억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라디오와 무가지 등 노출빈도가 높은 매체에 피해예방 요령과 피해구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농어촌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척결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 익명 접수도… 신고자 보복피해 막는다

##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서 피해상담·구제·수사의뢰 함께 진행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생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정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일제신고 기간 이후에도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해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이 펼친다.

A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0년 초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았다. 1백만원을 빌려 1백일 동안 매일 1만3천원을 상환(연리 2백퍼센트)하면서 시작된 사채 규모가 지금은 약 2억원으로 늘었다.

연체를 하면 여러 명이 가게로 찾아와 채무상환을 요구했다. 협박을 하면서 지인들에게까지 연체사실을 알리고 폭언을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문을 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그간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정부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용기를 얻은 것이다.

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서자 그동안 불법사금융에 고통받던 피해신고가 폭주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첫날에만 1천5백3건이 접수됐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첫날 신고접수 건수는 평소 평균 1백20건에 비해 12배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곳 센터에는 신고전화가 몰려 개설 첫날 한때 신고 대표전화인 1332의 연결이 잠시 원활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 이렇게 몰려든 신고는 4월 20일(오후 5시 기준)까지 총 4천3백37건이 접수됐다.

### 전화·인터넷·방문접수 모두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전화와 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전국적으로 총 2천2백15곳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그리고 경찰청의 각 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산하 기관 2천2백10곳이다.

4월 18일 문을 열자마자 불법사금융에 시달려온 서민들의 피해신고가 몰려들고 있는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피해상담과 구제·수사의뢰까지 한 자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퍼센트)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퍼센트)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와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이번 일제신고 기간의 특징은 그간 해당 기관별로 처리되어 오던 피해 상담과 구제, 수사의뢰가 금융감독원 안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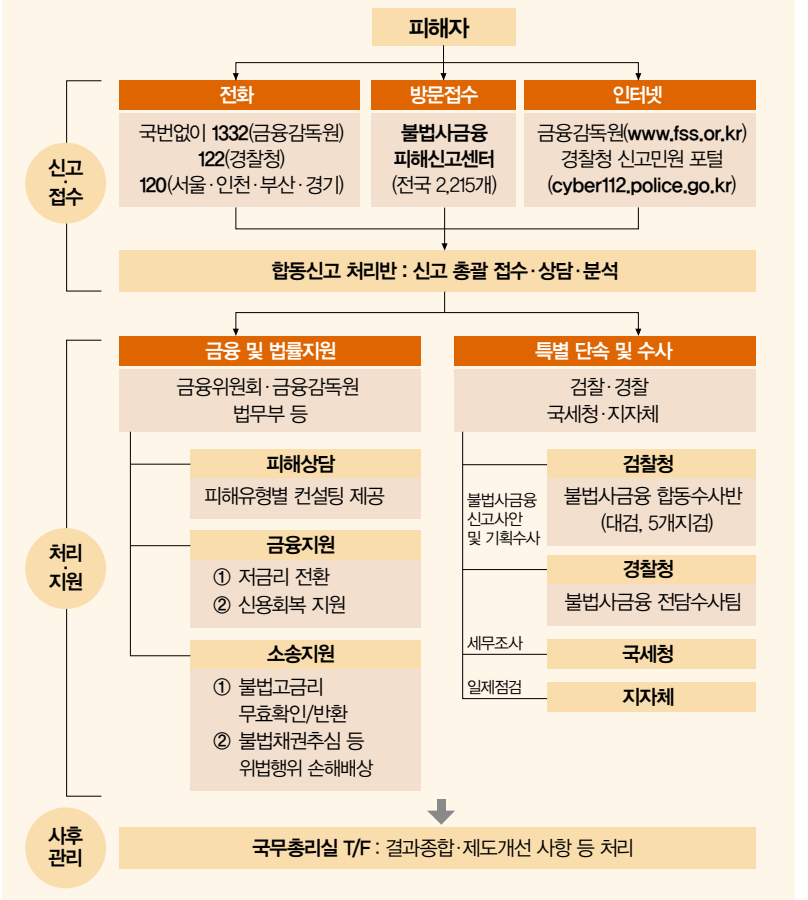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 등에 신고된 내용은 모두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되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파견된 반원들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를 시행한다.

### 확인된 피해는 금융·법률 지원 등 구제

피해상담을 통해서는 대부계약·추심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 주고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알려준다. 또 상담을 통해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각종 법률 지원 등 구제가 이뤄진다.

피해신고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과 경찰에 이첩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첫날 신고한 박씨의 경우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익명신고도 접수한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출석·귀가 시 경찰이 동행하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개 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검 및 지청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도 전국 16개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일제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전국 16개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활용해 불법사금융 신고접수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취약계층 대상 집중교육 실시하기로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농어촌주민·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해 집중 교육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구직센터·전통시장 등지에서 피해신고 접수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늘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이번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의 목표다. G

글·박경아 기자

# 신고하면 컨설팅 후 금융·신용회복 지원

## 신변 안전보장 위해 수사종료 후 통지도 신고자와 협의해 결정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피해구제 조치는 네 분야로 나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수립했다. 수사종료 후 통지방법도 최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신고자와 협의해 결정할 정도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는 네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감원에서 불법고금리 등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한다.

불법고금리 | 법정금리(대부업체 39퍼센트, 기타 사금융 30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무효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다.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안내한다.

불법추심 |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과 연계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경찰에 신고한다.

대출사기·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등 사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신고를 통해 범죄수사에 착수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미소금융, 신복위, 캠코)에서 2차로 1대1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신고인별로 전체 상담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해 운영한다.

###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민우대 금융지원 공급을 확대한다. 규모는 약 3조원.

가. 미소금융(미소금융재단)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백56억원) 대비 2배 수준(7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대학생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매년 3백억원)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 전환대출(최대 2천5백억원)을 공급한다.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백만원 한도, 연 4.5퍼센트 수준에서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한다.

나. 새희망홀씨(시중은행)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조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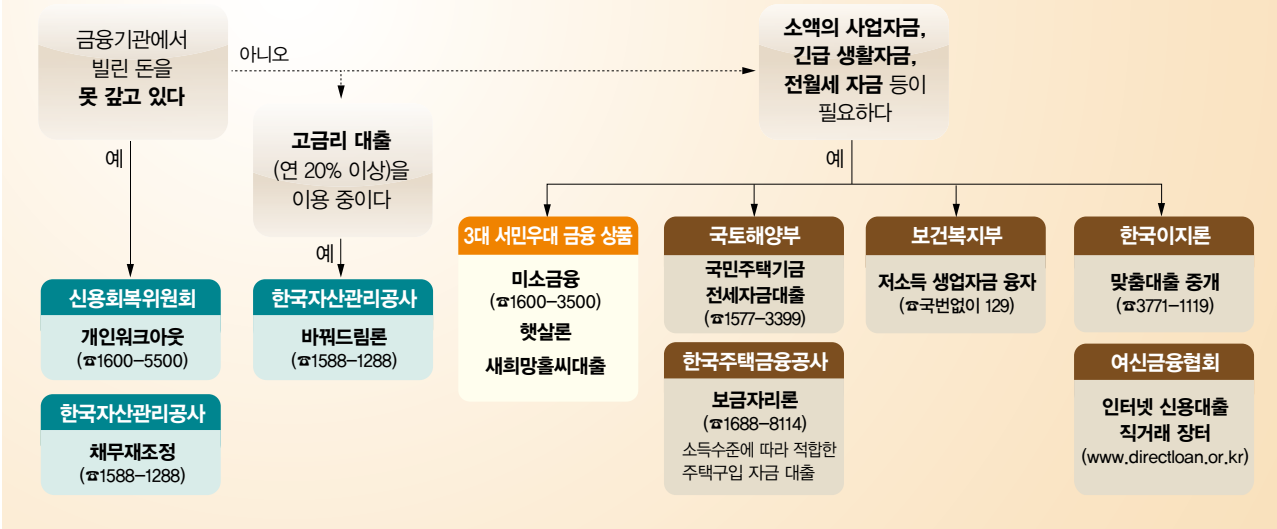
다. 햇살론(서민금융기관)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서민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한해 보증지원 비율을 85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햇살론 지원규모는 5천억원이다.

라. 바꿔드림론(캠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바꿔드림론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 신용회복 지원(신복위)

소액대출 |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중 1천억원 이상(신복위 6백억원, 신복기금 4백억원)으로 신규 확대한다.

신용회복 탄력 적용 |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운용한다. 대부업 이용자가 신용회복 지원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서민 금융지원 제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다**
- 예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재조정 (☎1588-1288)
- 아니오 → **고금리 대출** (연 20% 이상)을 이용 중이다
  - 예 →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1588-1288)
- 아니오 → **소액의 사업자금, 긴급 생활자금,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하다
  - 예 →
    - **3대 서민우대 금융 상품**: 미소금융 (☎1600-3500),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1577-3399)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688-8114) 소득수준에 따라 적합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
    - **보건복지부**: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국번없이 129)
    - **한국이지론**: 맞춤대출 중개 (☎3771-1119)
    -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신용대출 직거래 장터 (www.directloan.or.kr)

###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비용부담 때문에 자력으로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 신고자에게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손해배상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형사고발 등을 지원한다.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에 법률지원팀을 설치·운영한다. 금감원 파견검사 및 소속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피해신고 내용의 관련법규 위반여부 확인·설명, 대응방법 및 형사고발 요령 등 법률 지원을 한다.

최고금리 초과수취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도 도와준다.

범죄혐의 사실(피해사실, 증거 등) 등을 쉽게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도록 '표준 고소장'을 도입한다.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소송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부에 '법률지원 총괄 태스크포스',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을 설치·운영한다.

대표전화(☎132)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피해 신고자에게 불법고금리·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고 사후 실비정산한다.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행한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소송을 지원한다.

###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추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고 단계 | 신고접수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신고자 희망 시 익명(가명)으로도 접수한다.

수사 단계 | 검·경 신고 시 신고자와 피의자를 엄격히 분리해 조사한다.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 피의자·신고자 간 비대면 조사, 진술녹화실 활용, 가명이나 인적사항 미기재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방지한다.

수사종료 후 단계 | 신고자가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변동사항 통지를 원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속·수배·송치 등 주요사항을 통지한다. 통지방법도 최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신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G

글·박영철 기자

# 대부업자 법정금리 초과이익금 환수

## 불법 채권추심 최근 3년 신고사건 분석해 배후조직까지 추적

대부업체들이 법정금리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며 갖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례가 증가 추세다. 엄청나게 불어난 사채를 갚지 못해 숨어 지내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금융 이용 과정에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악덕 고리사채 때문에 부녀가 생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 전 대학생 A씨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연이자 4백98퍼센트에 3백만원을 빌렸다. 법정금리(등록 대부업체 39퍼센트, 미등록 대부업체 30퍼센트)보다 10배 이상 높은 금리였다.

A씨는 매일 4만원씩 90일 동안 갚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두 배 세 배로 불어나 1천5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A씨를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 강제로 취업시켰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화대 1천8백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버지는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숨졌다.

지난 한 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는 불법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고금리는 대출이자가 법정금리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불법채권추심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사채를 썼다가 이를 갚지 못해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고금리의 경우 피해자 상담 신고 건수가 2010년 7백48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천1건으로 늘었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2010년 1천1백36건이었던 것이 2011년 2천1백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법정금리 초과 이자는 반환의무 없어

피해사례도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추세다. 3백60여 명에게 신분증을 담보로 2억2천만원의 돈을 6백 회에 걸쳐 빌려주고 연 9백60퍼센트의 금리를 챙긴 사채업자가 있는가 하면, 5백만원에 대한 연 3백4퍼센트의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채무자를 옷 벗겨 성추행한 사채업자도 있었다.

심지어 임신 5개월째인 임신부가 생활비 목적으로 3백여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 기간(2012년 4월 18일~5월 31일)을 두고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신고 유형별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4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접수, 특별단속 실시, 피해자 규제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불법고금리 피해자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금융종합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식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자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불법고금리의 경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채권추심은 유형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다.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심야방문·야간전화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 범죄DB 분석 상습 폭력·협박업체 색출

그런데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고금리의 경우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초과 이익금(법정금리 초과분)을 환수하고, 폭행·협박을 일삼는 대부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불법고금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위반할 시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환수된 초과이익금은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업체 관련 법정금리 초과지급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하반기 이후 불법고금리 상담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검·경 합동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불법채권추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은 사건을 분석하고, 검·경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DB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업체는 물론 조직폭력배 등의 배후조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해신고가 잦은 대부업체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현장검사 실시, 대부업체가 보유 중인 연체채권을 신용회복기금이 적극 매입하는 등의 방안도 연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G

글·서철인 기자

일러스트 · 유재일

#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실시간 감시'

##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 인터넷 카페는 즉각 폐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돼 가고 있다. 특히 무작위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피싱사이트에 한번도 안 '낚여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피해사례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는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불법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직장인 박모씨는 얼마 전 메신저를 통한 인터넷 피싱으로 현금 50만원을 '날릴' 뻔했다. 박씨는 "친한 친구가 메신저를 통해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카드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니 30만원만 바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큰돈도 아니고, 최근에 그 친구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큰 의심은 없었다"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역시나' 그 친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 인터넷 피싱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메신저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인터넷 메신저의 대화명이나 남김말(대화자를 표시하는 문구)을 아예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 대신 '저 돈 안 빌립니다' '현금 요구, 저 아니에요' 등으로 써 놓은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주부 정모씨 역시 전화금융사기로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뻔했다. "며칠 전 경찰청 특수조사부라며 '내 명의의 대포통장이 확인됐다'면서 이것저것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그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말한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 의심 없이 질문에 답해주다가 말투가 어색해 반문하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 3백만원 이상 지연인출 · 입금제 의무화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교묘한 수법의 신종 피싱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모 은행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김모씨는 "문자메시지 송신 번호도 거래 은행과 같아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사이트를 클릭하려는 순간 다시 보니 홈페이지 주소가 교묘하게 달랐다"면서 당시 자신이 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줬다. 피싱 메시지와 해당은행에서 보낸 메시지는 홈페이지 주소 부분에서 알파벳 한 글자만 달랐다. 김씨는 "숨은 그림 찾기가 따로 없을 정도"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카드론 사기,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천7백20여 건, 총 피해액 6백21억원에서 2011년엔 8천2백44건, 총 피해액 1천19억원으로 늘었다.

유인방법도 과거에는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이 납치당했다거나 택배반송 등을 빙자한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한·중 사법, 경찰당국 간 국제협조를 강화해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 등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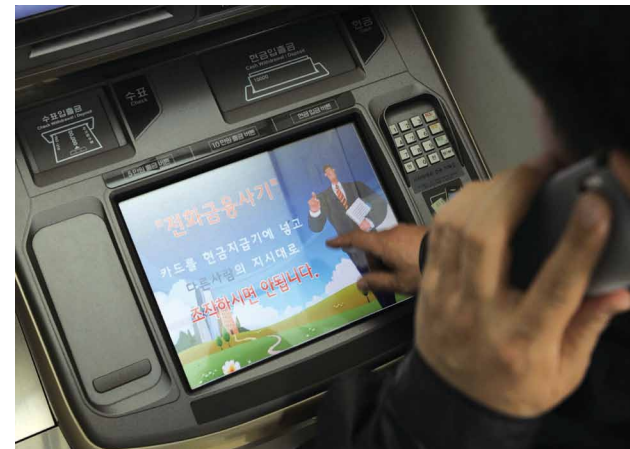
### 전화금융사기도 피해금 환급 방침

금융감독원에서는 대포통장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계좌에 대해 실시간 감시한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용자 본인이 지정한 단말기(최대 3대)에서만 재발급을 허용하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도 강화한다.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퍼센트가 3백만원 이상의 고액인 것을 감안해 예금인출의 경우 3백만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는 수취계좌 입금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고 카드론 신청금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지연입금(2시간 이후)을 의무화하는 등 취급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과 국제전화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도 크게 증가했다. 대출사기는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을 받은 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2010년 7백94건, 총 6억7천만원에서 2011년 2천3백57건, 총 26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사기를 척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는 불법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전단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인터넷 카페를 즉각 폐쇄시키도록 한다.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토록 한다.

조선DB

전화금융 사기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에는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경고문구가 곳곳에 표시돼 있다.

대출사기 피해구제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없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구제 대상이 되는 사기의 범위가 매우 좁게 정의돼 대출사기 등 변형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구제가 불가하다. 대출사기 피해 구제도 가능하도록 '대출사기'를 피해 구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잃은 돈 환급법 소개

한편 법무부는 공식블로그 '행복해지는 법(blog.daum.net/mojjustice)'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을 환급받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재빨리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부터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계좌와 사기범의 계좌가 있는 양쪽 금융회사 모두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는 은행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계좌와 명의인에게 채권소멸공고를 공지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유는 명의인 역시 실제 사기범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인의 이의사항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피해구제신청서를 검토 후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G

글·박근희 기자

# 불법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 '살인적 이자' 대부업체 집중 단속… '보험범죄 합동대책반'도 구성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감독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함께 꼭 척결해야 할 문제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대학생 최익현(가명)씨는 요즘 도통 잠을 자지 못한다. 석 달 전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것. 최씨는 정보지에 쓰인 내용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50만원의 대출금 중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선공제해 최씨가 손에 쥔 돈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대출금은 일주일 후 상환하고 미상환 시에는 연장이자 8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는 연이자율 3천4백76.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다.

대부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은 작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지명(가명)씨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수퍼마켓을 확장하려고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

알고 보니 박씨가 돈을 빌린 곳은 무등록 대부업체. "등록 업체니 걱정할 것 없다"는 대부업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정상적으로 빌린 줄만 알았던 대출금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매일 몇 만원씩을 상환하는 이른바 '일숫돈'이었다. 박씨의 대출금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39퍼센트)을 훨씬 초과한 연 3백90퍼센트였다.

### 대부업 전담자 지정… 지자체 단속역량 강화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박씨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자는 수시로 박씨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그의 가게를 찾아 행패를 부렸다. 결국 박씨는 가게 확장은커녕 있던 가게마저 처분해 돈을 갚아야만 했다.

정부는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렇듯 은행권에서 배제된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부업체는 교묘하게 법망을 넘나들며 고이율, 협박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은 무등록 대부업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갖은 명목을 대며 돈을 갈취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부업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할 뿐더러 그나마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처지였다. 더구나 담당자도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대부업체 등록·관리 업무만을 처리할 뿐이었다.

문제는 또 있다. 대부업 정책과 감독, 피해구제와 단속 간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업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업 정책관리는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등록 및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수사 및 처벌은 검찰·경찰로 분산돼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대부업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대부업계의 단속과 수사는 물론,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에서는 등록 대부업자 현장점검과 단속강화를 위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자체 대부업 전문교육과정도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로 상·하반기 2차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행했던 금융감독원·지자체의 대부업체 합동점검도 매년 1회로 의무화된다.

직권검사 대상업체도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자산 1백억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대부거래자 1천명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중견 대부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매년 1백10여 개 정도의 등록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대부업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불법사금융 척결과 함께 보험범죄에도 철퇴를 가한다. 보험범죄는 국민의 부담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3차례에 걸쳐 보험범죄 척결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현금차용증이나 담보를 함부로 맡기면 불법추심, 재산 강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현금차용증.

그 결과 보험범죄 적발 실적은 2009년 3천3백67억원에서 2010년에는 3천7백46억원, 2011년에는 4천2백3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험범죄범 검거 인원은 대책이 마련되기 전인 2008년 5천3백12명에서 대책을 추진한 2009~2011년에는 평균 1만9백1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실적을 근거로 앞으로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검사 심평원에 위탁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검찰·경찰, 금감원, 보험협회 등이 구성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연중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은 올해 하반기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올 3분기에 민영보험·공제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취약분야인 자동차·건강보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보험범죄 예방과 보험료 부담 인하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교통사고환자의 허위·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및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범죄 근절노력이 소비자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보험료 산정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G

글·손수원 기자

##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피해 접수부터 해결까지 최선의 노력"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조성래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총리실에 TF팀을 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고 사금융보다 훨씬 유리한 서민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 실장은 "사금융에 앞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의 문을 두드리라"고 당부했다.

정동우 기자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피해신고와 피해구제, 법률지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며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화가 쇄도했다. 60여 명의 상담직원들은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잠시도 자리를 뜨기 힘들 지경이었다. 머리에 쓴 헤드세트를 벗을 겨를이 없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풍경은 그랬다.

이곳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 다음 날인 4월 18일에 문을 열었다. 원래 금융감독원 내부에 있던 신고센터를 확대했다. 센터는 첫날부터 쇄도하는 전화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개소 첫날 하루에만 1천5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평소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 날인 19일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나오자 용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신고센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상담직원들이 대부분 정장 차림의 남성인 점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모두 금감원 직원들인가요.**

"금감원 내부인력은 20명 정도이고 대개는 민간 금융회사 직원들입니다. 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민간회사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뽑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피해상담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카드사기 피해를 상담하는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워낙 전문가들이어서 하루 이틀 만에 적응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금감원의 전담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피해구제와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지요.**

"이번에 개소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종전의 센터와 가장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전에는 신고만 받고 해당 업무를 경찰이나 검찰, 지자체 등으로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개별기관별로 진행하던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피해신고에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피해자들의 애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관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적잖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을 단속하는 것도 시급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전국 16개 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정도로 불법사금융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요.**

"신고 접수 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전담 컨설턴트가 확인해 미진한 점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억울한 피해가 해결되도록 피해 접수부터 해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사금융권이 위축되면 서민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사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제도권에도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금리와 상환조건 등 모든 점에서 사금융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일단 은행을 방문하십시오. 한 은행에서 해결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은행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해당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해도 또 다른 대안을 알려줄 것입니다.

은행을 방문하기 주저되면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서도 최적의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캐피털, 카드사, 대부업체 등 대출이 가능한 곳을 검색해 줄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와 금액도 알려줍니다."

**서민금융은 재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지난해 1조2천억원 지원을 계획했지만 그보다 2천억원 많은 1조4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조5천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에 대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나오자 용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부업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령 대부업체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조달금리가 싸지고 그 결과 대출금리도 떨어질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회사채 발행이나 주식시장 상장을 하면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해지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제도권 금융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업계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최고금리를 몇 차례에 걸쳐 인하했지만 39퍼센트인 현재 최고금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금리를 하향조정했지만 대부업계의 대출잔액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신고기간이 끝나도 현재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민간기업의 자원봉사자들은 특별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 이후엔 모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월 1일부터는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많으면 상담인력도 충원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지방에도 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만 있는 '지역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전국 16개 광역시·도로 확대할 것입니다."

**누군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금융 피해 사례를 보면 제도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불법사금융은 맛있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과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G

글·변형주 기자

# "사금융 벗어날 서민금융시스템 구축을"

## 일자리 창출·복지정책 통해 서민 실질소득도 높여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악화와 제도권 금융사들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증가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지난 4월 17일 발표됐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면서 그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불법사금융 폐해를 정부의 단속만으로 완전히 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3년 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지만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수급불균형에서 기인하는 불법사금융 시장의 과도한 성장과 그로 인한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단속은 물론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 공적 신용회복지원시스템과 연계 필요

국내 서민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됐다. 그 결과 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초과수요' 현상 때문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시장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은 서민금융에 대한 총수요가 완전비탄력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이 축소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을 통해 자금수요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급자의 공급정책이 시장의 수급을 좌우한다는 점도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큰 특징이다.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사 등의 여신정책이 보수화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금운용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거액여신 위주로 전환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급자의 정책에 따라 수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사금융을 추방하려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물론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기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이러한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특징 때문에 부실 발생은 불가피하며 시장의 힘만으로는 불법사금융과 서민금융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시장과 대칭되는 공적 차원의 신용회복지원 시스템이 중층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서민금융 초과수요 공공부문서 해결해야

국내 사금융 시장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계획은 3조원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금융회사가 수익원리주의를 일정 정도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 자체의 능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결국 시장실패로 야기되는 서민금융 초과수요는 시장에 대칭되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민금융 초과수요 현상은 서민가계의 소득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실업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많아질수록 불법사금융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자면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및 부실발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특히 서민금융과 신용회복에 전문화된 공적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소외자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회복기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매우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춘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적 차원의 보완 기능을 매우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채무자의 특성에 맞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취업알선을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서민들의 금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척결방안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은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역작용으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더욱 곤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G

글·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용 세계은행 차기 총재

# 개도국에 깊은 배려… 능력으로 정상 서다

한국계 김용 박사가 세계은행(WB) 총재에 올랐다. 미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성공 배경에는 한국과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김용 박사는 한국계이기 때문에 총재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의료·제약 지원활동을 펼쳐 온 김용 총재의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된다.

신화연합

오는 7월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하는 김용 박사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세계에 전파할 적임자로 신망이 높다.

"세계은행의 진로는 한국이 과거에 겪었던 길로 향해 갈 것이다. (지난 시절 한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길은 안정적이고도 모두가 낙관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뉴욕타임스 4월 16일자〉

"나는 비포장 도로와 높은 문맹률을 가진, 전쟁이 막 끝난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다. 나는 그토록 가난한 나라가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되면서 가장 역동적이고 부유한 곳으로 변해 가는 것을 지켜봤다."〈파이낸셜타임스 3월 28일자〉

김용 총재는 세계은행 총재에 입후보할 때는 물론 총재로 당선된 뒤에도 한국과 한국계에 대한 말을 빼놓지 않았다. 미국교육을 받은 미국 국적자로서가 아닌, 한국계로서 한국의 경험과 발전사를 전세계에 전도하겠다는 포부를 '틈만 나면' 밝혔다. 김용 총재의 성공담은 '결코' 머리 좋은 한국계 인물의 개인적인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이 쌓아 온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대변인이자 증거'로서 세계은행 총재에 당선된 것이다.

### 공부벌레? 스포츠 통해 화합과 조화 배워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 총재는 1964년 미국 아이오와주 머스카틴(Muscatine)으로 건너간다. 아버지 김낙희(1987년 별세)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7세 때 평안북도 남포에서 단신 월남, 서울대 치대를 나왔다. 머스카틴에 정착한 김낙희씨는 아이오와주립대학 치과교수로 일했다.

어머니 전옥숙씨 역시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실향민이다. 외할아버지는 시조시인 전병택씨고 외할머니 이경자씨 또한 시인이었다. 문학가 집안의 딸답게 전옥숙씨는 미국에 건너가 아이오와대학에서 퇴계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전쟁과 가난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한반도 어딘가로 흩어지거나 아예 외국으로 떠나서 살아야 했던 것이 김용 총재의 가계사(家系史)이자 한국의 현대사이다.

김용 총재 가족의 첫 보금자리인 머스카틴은 인구 2만의 작은 내륙 도시로 주변의 나무를 이용한 가구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김용 총재의 중·고교 재학시절은 한국인에게 '특히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시기로 활용된 듯하다. 사회성이 부족한 책상물림 모범생이 아니라 미식축구팀 쿼터백과 농구팀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다. 운동을 통해 화합과 조화를 배운 셈이다. 다트머스대학 총장으로 학생들과 함께 랩을 부르는 유튜브 영상물이 화제가 됐지만 김용 총재의 '끼'는 이미 중·고교 시절부터 단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용 총재는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어머니 전옥숙씨가 자신의 '끼'를 장려했다고 말한다. 열심히 운동과 공부를 병행한 끝에 머스카틴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으로 진학했다.

AP연합

김용 차기 총재는 개발도상국 보건복지 활동에 매진해 왔다. 김용 총재가 4월 15일 페루 리마문화센터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김용 총재는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대학 총장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대학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색인이, 특히 동양인이 최고 상아탑의 총수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 공중의학·인권 결합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

미국 대학은 총장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상설화하고 있다. 틈만 나면 만나서 학문과 인생의 선배로서 대화를 나눈다. 김용 총재가 대학 2학년 때 나눈 아버지와의 대화는 학생들에게 전해 주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자신의 정열이 향하는 곳으로 인생을 걸어라. 그렇지만 뭔가 기능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정열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대학을 졸업한 김용 총재는 1982년부터 하버드대학 대학원에서 의학과 인류학을 공부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사건 이후 어린 김용이 결심했던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다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찬스였다. 기능으로서의 의학과 정열로서의 인류학에 매진했다. 본업인 의학과 함께 인류의 역사배경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1993년 인류학 박사까지 따냈다.

1993년 이후 하버드대학에 머물면서 공중의학(Social Medicine)과 인권을 결합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떠올랐다. 공중의학은 의학, 의약, 정치, 문화, 인종, 경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영역이다. 하버드대학 내 공중보건(HSPS) 소장으로 있으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의료 봉사에 나섰다.

하버드대학 MBA(경영학석사) 과정과 공동으로 '전세계 건강도우미 프로젝트(GHDP)'를 만들어 초대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결핵 예방운동에 본격 나섰다.

2009년 4월 다트머스대학 총장에 임명된 뒤에도 지진피해를 입은 아이티(Haiti)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속했다. 의학을 정치와 인권에 연결시키는 것은 학문, 특히 하버드대학 같은 곳에서도 그때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영역이었다. 저널리즘이나 사회운동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학문'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것은 김용 총재가 처음이었다.

### 개도국 출신자들의 또 하나의 '꿈과 모델'

하버드대학과 다트머스대학에서 벌인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운동은 김용 총재가 세계은행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발도상국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세계은행 총재로서 이미 '실전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처럼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정치인과 확연히 달랐다.

한국은 인구억제·문맹퇴치·보건의료·교육·인권·환경이란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케이스이다. 한국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이 보여 준 객관적인 성적이 세계은행을 움직이는 나침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물론 그의 인생이 보여 준 성공담은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오바마 스타일'의 꿈과 모델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G

글·유민호 (워싱턴 주재 칼럼니스트)

귀화인 첫 공기업 CEO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 스토리텔링 도입… 문화자원에 감성 입혀

2009년 7월 이참씨가 귀화인 최초로 공기업 사장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그의 사장 임명 자체는 큰 화젯거리였다. 국민들은 '푸른 눈'의 사장을 낯설게 바라봤지만, 그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여는 등 한국을 관광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려 애쓰고 있다.

이경호 기자

이참 사장은 외국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이려면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소재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출신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본명은 베른하르트 크반트. 구텐베르크대에서 불문학과 신학을 전공했다. 1978년 한국 문화에 매료돼 한국에 정착한 그는 1986년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해 '독일 이씨'의 시조가 됐다. 처음 한국 이름은 '이한우'였으나 2001년 '한국 사회에 완전히 참여한다'는 뜻으로 '이참'으로 개명했다. 국내에 정착한 이후 30여 년 만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에 오른 것이다.

집무실에서 만난 이참 사장은 당시 인사를 회고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귀화인에게 공직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열린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본다"면서 "공사의 주요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인 세계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을 역대 정부 최초로 임명권자가 강점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참 사장은 2009년 취임 일성으로 "컨벤션, 기업 회의 유치 등 국외 시장 개척을 위해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세일즈맨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참 사장은 한국 관광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숙박,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는 경쟁국인 일본에 못 미치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0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 세계 관광객의 0.7퍼센트인 6백89만명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6.7퍼센트에 그쳤다.

이참 사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고유의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 왔다"면서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변의 작은 것들을 이용해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이를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그의 평소 생각이다.

또 구체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실행 방안으로 'MICE' 유치에 전력했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Event)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참 사장은 "2011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유치라는 숫자는 국민들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심리적 터닝 포인트"라고 했다.

**3관5림, 기·흥·정 등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들이 관광공사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3관5림'은 삼강오륜에서 차용해 온 개념입니다. 3관은 관심(關心)·관찰(觀察)·관계(關係)를 말하고, 5림은 떨림·끌림·어울림·울림·몸부림입니다. 우선 관광객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끌리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마음 깊이 울림을 이끌어내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즐거움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자는 관광객 중심 주의입니다. '기(氣)·흥(興)·정(情)'은 한국만의 독특한 에너지로서 해외 텔레비전 광고 콘셉트로 풀어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강조했는데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지요.**

"관광은 감성을 파는 산업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세련된 방법으로 포장하는 홍보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매력을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서 찾는 겁니다. 칼국숫집 할머니가 덤으로 비빔국수나 보리밥도 더 내주시는데, 이것이 내면적인 우리의 매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유치 규모는 세계 20위권, 아시아 7위권으로 관광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관광선진국으로서 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고용창출은 물론 자국민도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 삶의 질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1만명을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1회성 성과인지, 지속적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확보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9월, 중국 바오젠사의 직원 1만1천명이 포상관광으로 방한했습니다. 1만1천명이란 규모는 바오젠사 직원의 10퍼센트 수준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포상관광으로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수기업이 인센티브 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국 내 다른 기업 포상관광지 선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한 한국관광서포터즈들과 함께 경남 산청의 한옥을 둘러보고 있다.

**한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세계에 통할 수 있는 한국음식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식재료, 조리법으로도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료의 맛과 색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강에도 좋은 과학적 요소를 갖고 있고, 오미(五味)·오색(五色)을 이용해 우리 몸과 정신을 음양오행의 기로 균형 있게 합니다. 한식은 원래 맛을 살리면서 현지 입맛에 맞게 응용이 가능해 김치 타코, 불고기 피자 등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맛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곧 여수엑스포라는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일본, 중국 등 근거리 지역에서 6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여수엑스포 한류 콘서트를 개최하고, 일본 10대 여행사 사장단을 초청하는 한편 30대 여행사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참 사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컨벤션 관광객을 유치하느라 배우기 시작한 일본어와 중국어가 인사를 나눌 정도로 된 것도 번외의 소득"이라며 웃었다. G

글·오동룡 기자

'이명박정부와 사람들' 시리즈를 마칩니다.

### 행복나눔人상 받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최수진씨

# 모국 후배들 위해 산후조리, 통·번역 봉사

이국땅으로 시집 와 치열한 적응기를 거치고, 적응 후 아무런 대가 없이 4년째 봉사를 실천해 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있다. 베트남 이름은 팜 피뚜엔,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최수진(30)씨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봉사를 이어 온 최씨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행복나눔人(인)'상을 받았다.

베트남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최수진씨. 동료들 사이에서도 근면성실하기로 유명하다.

"상을 받으려고 봉사를 한 건 아닌데 상을 주시니 마음이 편칠 않아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제 모습이 생각나 '후배'(한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인데…."

최수진씨는 수상 소감을 묻자 쑥스러운지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돼 좋다"며 웃었다.

최씨는 현재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베트남 전문 한경그룹여행사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며 시간을 쪼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그의 봉사활동 영역은 한글 교육에서부터 통·번역, 산후도우미까지 다양하다.

**임신·출산 때 의사소통 안돼 가장 힘들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부부싸움이 났을 경우 통역을 해 주며 중재하는 역할도 마다않는다. 모두 자신이 한 번쯤은 경험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친정이 교육자 집안이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땐 부모님의 반대도 컸지요. 그래도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한국에 와 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엔 의사소통이 안돼 우울증도 겪었지요. 결혼하자마자 첫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최씨는 2006년 4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 하나 그 다음해 딸 하나를 낳았다. 임신과 출산은 그에겐 한국사회 정착의 시작이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국땅에서의 연년생 출산은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간호사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출산 후 산후조리 역시 결혼이주여성이었던 그에겐 사치나 다름없었다. 그는 "남편이 설비분야 일을 하고 있지만 시력을 잃은 시어머니와 몸이 불편한 시누이의 실질적인 부양을 맡고 있는 터라 누구 하나 몸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서 "두 아이의 임신과 출산 기간이 결혼 6년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은 오히려 그가 봉사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자신은 어렵게 견뎌 냈지만, 후배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그는 2007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한국 사회에 당당하게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갔다.

**"생활에 쫓겨 봉사시간 점점 줄어 아쉬워"**

그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본격적인 적응훈련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어지도사 양성교육도 의욕적으로 받았다. 취업준비와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적응을 어느 정도 하자 그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대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적응이 끝나면 복지관을 찾지 않는데, 최수진씨는 이후에도 복지관에 와 다른 베트남여성들의 적응을 도왔다"는 게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손수현(26) 사회복지사의 설명이다. 베트남 해양관광대학교에서 정보기술을 전공했던 최씨는 자신의 전공과 한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부터 펼쳤다. 그는 한국어 검사지 등 각종 서류번역 봉사에서부터, 복지관 프로그램 진행 시 동시통역 봉사, 한국어지도 봉사, 멘토교육 봉사 등등 복지관 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관련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적극 도왔다.

최수진씨 가족. 남편 황인보씨와 아들 규하, 딸 정하. 최씨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손수현 사회복지사는 "특히 통·번역 봉사는 복지관 측에서도 외부에 의뢰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최씨가 현재까지도 무급으로 봉사해 주고 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산후도우미가 필요한 후배가 있으면 달려가 산후조리를 도왔다. 후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는 친정엄마고 언니 같은 존재였다.

**"결혼이주여성도 정규직 채용 많았으면…"**

행복나눔인상 역시 이런 이유로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추천해 받은 것이다. 2010년 10월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생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도 상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베트남 친정에도 다녀왔다. 최씨는 "생활이 우선이다 보니 봉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이제는 적응보다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놨다.

"한국 엄마라도 아기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가르쳐야 하다 보니 자녀교육 하는 것 더욱 힘들어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씨에게 앞으로의 바람을 물었다.

"지금의 일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관공서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관련 일을 해 보고 싶어요. 대부분 저같은 결혼이주여성은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식 채용돼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 역시 한국적응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고 싶어요." 그에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꼬리표보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민간외교관'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렸다.

글·박근희 기자

##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씨앗"

4월 26일은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이다.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보호권, 저작권 등으로, 특히 저작권은 국가 콘텐츠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앞두고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을 만났다.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올해는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불법복제와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2010년 이사장을 맡은 후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자원"이라면서 "이 값진 자원을 당당히 즐기는 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라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땀과 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월급을 제대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보상이 보장돼야 창작자들도 신바람 나게 창작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신바람 나게 한 창작활동들이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우리의 업무가 콘텐츠산업 발전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작권자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2005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에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12개의 정회원 단체와 4개의 준회원 단체가 소속돼 있고요. 이러한 신탁관리단체들이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면 온·오프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가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저작권보호센터의 대표적인 실적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05년 저작권보호센터가 문을 연 이후 2006년 1천5백50만점의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8천6백60만점을 단속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저작권 보호활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지요. 2009년에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어요. 이때 미국이 우리 저작권보호센터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의 저작권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요. 이후 우리나라가 감시대상국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보호센터가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이외에도 2008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불법복제물을 단속하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ICOP를 개발했습니다. ICOP는 현재 음악, 영상, 게임, 출판분야의 불법복제물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용산 지역에 '불법저작물 단속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 진행된 대표적 사업이 있다면.**

"2010년 이사장 취임 후에는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를 세계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어요. ICOTEC는 세계 저작권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저작권기술 업체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지요. 올해 9월에도 ICOTEC 행사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4시간 온·오프라인상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전에 기존 웹하드나 P2P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록제 이후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사업은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사업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사업 두 가지 입니다. 현재 재택모니터링 사업에 장애인 1백명이 참여하고 있고, 60대 이상 어르신 20명이 실버감시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재택모니터링은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물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버감시원들은 신체가 건강한 60대 이상 실버분들로서 서울지역을 고루 다니면서 길거리, 지하철역 주변 노점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지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지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과 실버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 중 장애인 재택모니터링은 온라인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다.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3월까지 장애인 재택모니터링을 통해 약 3천만 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실버감시원을 통해서도 약 90건의 수거 실적을 올렸고요."

**이사장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저작권에 있어서는 방송인 이상벽이 아닌 저작권 단체들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이사장으로서 저작권 신탁단체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과 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저작권자들과의 가교 역할이 연합회장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듣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조그마한 노력으로 우리 저작권산업계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문화예술과 연예분야에 취재기자로 10년, 방송진행자로 40년 등 반세기 동안 콘텐츠산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저작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 찾아주기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용자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며 산업활성화에 따른 이익이 저작권자들에게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G 글·박근희 기자

# "칭기즈칸의 몽골 문자 가르치고 싶어요"

## 몽골 교사 20명, 두 달 동안 국내 초등·고교 9곳에서 다문화 수업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사 20명이 4월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강원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단에 오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몽골 교사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초청된 몽골 교사들이다. 한국 교사들이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동안 이들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몽골어와 몽골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몽골 고유 문자(키릴 문자)부터 가르치고 싶어요. 또 몽골의 풍습과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과 몽골 양국의 비슷한 점도 아이들과 재미있게 논의할 거예요."

4월 19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만난 몽골 울란바토르시 제58학교의 상사르마 날지르(22·몽골어, 문학) 교사의 말이다. 그는 4월 21일 이곳 교육원에서 8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서울·경기·강원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9곳에 배치되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크바타르구(區) 교육청 소속 교사 20명 가운데 한 명이다.

날지르 교사는 한국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묻자 이렇게 '몽골 문자'를 꼽았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몽골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몽골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심어 주고 싶다'는 게 몽골 교사들의 이야기였다.

### '한·몽골 교사교류'… 한국교사 19명도 파견

지난 4월 13일 우리나라에 온 이들은 교과부의 '한국·몽골 교사교류'를 통해 초청된 몽골 교사들로, 오는 6월까지 몽골 배경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집중된 학교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혹은 방과후수업의 전담·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몽골 교사교류'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다문화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국내에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주변국에서는 한국어 교육 요청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주변국 교사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교육현장을 체험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며, 우리나라 교사를 대상국가에 파견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가워요, 몽골 선생님!" 한국·몽골 교사교류에 참가한 몽골 교사들이 4월 1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부설 유치원생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정교사 자격증 보유자 19명을 선발해 지난 4월 14일 울란바토르로 파견했으며, 이들 역시 올 6월까지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 온 몽골 교사들은 4월 13일 교육원에서 몽골로 떠나는 한국 교사들과 함께 한국·몽골 교사교류 출범식을 갖고 통역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교육현실과 교사로서 책임감, 연수계획에 대한 진지한 교류를 갖고 짧지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몽골 교사들은 연수시간 동안 기초한국어 등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러 학교현장을 방문해 수업에도 참관했다. 이들은 4월 17일에는 스마트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이태원초등학교를 찾았으며, 18일 교육과정평가원, 19일 서울 신교동 국립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를 방문했다.

연수단장 격인 제4학교 초등부의 나랑토야 공칙(45) 교사는 "몽골과 한국은 교육과정이 비슷해 (연수 프로그램 중에) 귀국 후 바로 적용하고 싶었던 내용도 있었다. 특히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세세한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들도 "실제 한국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수업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일부는 몽골에 돌아가 다른 교사들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 "한국 교육현장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몽골의 인구는 약 2백48만명. 이 중 약 80만명이 수도인 울란바토르 인근에 집중돼 살고 있다. 인구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니 '사람이 곧 국가의 재부(財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란바토르 제1학교 초등부 오윤-모르덴 몽흐도(38) 교사는 "몽골 정부도 한국처럼 인재육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에 적극적이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30퍼센트 가량 높은 임금을 주며 교권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 우리 몽골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몽골로 간 한국 교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류 행사의 연수를 담당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류팀의 김광희씨는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교사들을 환영하는 자리에 몽골 교육문화부 차관이 나오고 주요 신문방송에서 취재를 왔더라"며 "너무 큰 환대에 우리 쪽 교사들이 어리둥절했을 정도다. 그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한국 교단에 서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몽골 문화를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 몽골교사들. 이동 중 버스 안에서도 진지한 표정들이다.

### 학교에선 자원봉사 통역요원들이 수업 도와

몽골은 2005년부터 5-4-2-4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교명 대신 설립순서에 따라 '제1학교' '제2학교' 식의 번호로 부르며 제108학교까지 있다. 앞쪽 번호일수록 전통 있는 명문이라고 한다. 이번 몽골 교사 연수단 중에는 10번 대 안쪽 학교 교사가 5명 포함됐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이들 몽골 교사에게 이번 교류가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이기도 했다.

울란바토르 실업학교의 간투야 척바드르흐(33·영어) 교사는 "일과를 마치고 지하철로 동대문을 다녀왔는데, 신용카드가 잘 읽히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개찰구 아래로 지나가기도 했다. 지하철 밖에서는 길을 잃고 쩔쩔 매다가 행인들의 도움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의 숙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며 사연을 소개했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 교사들이 배정된 학교는 ▲서울 신곡초등학교, 강양고등학교, 잠일고등학교, 인터내셔널몽골리아학교 ▲경기도 김포시 마송초등학교, 부천시 계남초등학교 ▲강원도 철원시 김화초등학교, 원주시 만대초등학교, 춘천시 봉의고등학교이며, 각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통역요원이 수업을 돕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 글로벌인재협력팀 지혜진 사무관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육현장 수요와 다문화 대상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류 규모와 대상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반갑다 런던!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다시 참가하는 런던올림픽 메인스타디움. 4월 16일 항공 촬영한 모습이다.

#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 알릴 계기로 삼자”

## 사상 첫 현지에 훈련캠프… 포상금 올리고 ‘한류 확산’ 코리아 하우스 운영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한 이후 태극기를 앞세우고 처음 참가한 올림픽이 1948년 런던올림픽이었다. 64년 만에 다시 참가하는 제30회 런던올림픽에 대비해 정부는 ‘세계 10위권’ 유지와 함께 런던올림픽을 한류 확산 지속과 한국관광 인지도 향상의 기회로 삼기 위한 종합적인 문화·예술·관광대책을 수립했다.

오는 7월 27일 개막하는 제30회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올림픽 참가 최초로 현지 훈련캠프가 설치된다. 또 올림픽 기간 동안 런던에 코리아 하우스가 운영되고, 한국문화축제가 열려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영국인은 물론 런던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9일 런던올림픽 개막이 1백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적인 올림픽 참가를 위해 체육·문화·예술·관광 분야를 망라한 ‘제30회 런던올림픽 참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한국 대표팀이 광복 후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한 첫 하계 올림픽이 바로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이고, 이번에 64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다시 참가하는 것”이라며 “그간 한국 스포츠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스포츠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 金 10개로 3회 연속 세계 10위권 목표

최 장관은 이어 “정부는 런던올림픽을 한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한국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런던올림픽 참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 런던올림픽에 24개 종목 2백50여 명의 선수를 파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4월 19일 현재 사격, 탁구, 양궁, 레슬링 등 17개 종목(89개 세부종목) 1백76명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금메달 10개, 3회 연속 세계 10위권 유지’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했다.

먼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세워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최근 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양궁,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사격, 수영, 체조, 레슬링 등 11개 전략 종목을 선정해 해외 전지훈련과 외국인 코치 영입 등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올 상반기 ‘1백50일 이상 집중 훈련’을 목표로 훈련일수가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 10월 준공된 충북 진천훈련장을 통해 입촌 대상 종목과 훈련이 강화되어 왔다.

둘째, 훈련 여건 개선을 통해 훈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목별 훈련 방법의 과학화 및 차별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오는 7월 20일~8월 13일 런던 브루넬대학에 올림픽 참가 최초로 현지 훈련캠프를 열어 시차 적응과 사전훈련 등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제공한다.

셋째, 메달포상금을 베이징올림픽 때와 비교해 금메달 5천만원→6천만원, 은메달 2천5백만원→3천만원, 동메달 1천5백만원→1천8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도자·선수 수당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선수단의 사기가 높아지도록 했다.

### ‘From London To London’이 홍보 콘셉트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한국 대표팀의 런던올림픽 참가 기본 콘셉트는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이다. ‘스포츠 수혜국에서 스포츠 원조국으로’란 부제가 달린 이 기본 콘셉트에 따라 한국을 홍보하고 달라진 스포츠강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 올림픽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고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영국 현지에서 우리의 지원을 받은 개도국 메달리스트에 대한 국제 홍보 지원, 개도국 관계자와 스포츠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협의, 우리나라 국제경기 대회 운영과 관련된 성공 사례 공유 사업 등 기본 콘셉트가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런던올림픽 개막을 1백여일 앞둔 4월 1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런던 로열요트클럽에 약 1천7백50평방미터 규모의 ‘런던 올림픽 코리아 하우스’가 운영된다. 코리아 하우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초청 등 스포츠 외교의 장으로 활용되며, 취재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인터뷰 장소, 기타 선수단 지원 활동, 개도국 선수들에 대한 홍보지원 등에 활용된다.

### 한류 확산 가속화 ·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

이와 함께 최근 K팝의 인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 및 관광에 대한 런던 현지에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관광 한국의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6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1백 일간 런던 템스강 남쪽의 사우스뱅크센터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소개하는 한국문화축제 ‘오색찬란’을 개최한다. 사우스뱅크센터는 세계 최대 장식미술 및 디자인 전문박물관으로, 한인 작가들의 시각예술 전시, 음악공연, 영화, 한복패션쇼 등이 펼쳐진다.

또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한식, 한류, K팝 등을 소개하고, 런던올림픽 기간 중에는 런던 시내버스 25대에 래핑광고를 실시한다. 런던 중심가인 피카딜리광장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널리 알리게 된다.

최광식 장관은 대책 발표를 마치며 “64년 만에 다시 한 번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우리 대표 선수단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문화의 힘으로 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알리게 되는 런던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최 장관의 기대는 국민 모두의 기대일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 신인밴드 '버스커 버스커' 돌풍 심상찮다

## 감성적 보컬·가사에 공감… 첫 앨범 거의 전 곡이 음원차트 휩쓸어

벚꽃과 함께 새로운 신인밴드가 출현했다. 그것도 아주 센 인기 돌풍을 몰고 말이다. 〈슈퍼스타K3〉 출신의 3인조 남성밴드 버스커 버스커(Busker Busker)가 바로 그들이다. 버스커 버스커는 최근 거의 모든 음악 차트를 싹쓸이하며 따뜻한 봄바람에 가슴 떨려 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울리고 있다.

버스커 버스커는 아이돌 일색인 가요계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담은 노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슈퍼스타K3〉 파이널에서 최종 우승후보에 오른 버스커 버스커가 열창하고 있다.

이제 막 1집을 발매한 신인밴드 버스커 버스커 열풍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29일 첫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수록곡 대부분이 온라인 음원사이트 차트의 10위권 내에 진입하고 3주가 지난 후에도 총 6곡의 노래가 차트 10위권 안에 위치하고 있다.

앨범 수록곡 대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장기간 사랑을 받은 예는 빅뱅 정도밖에는 없다. 그러나 빅뱅은 이미 5년차를 넘겨버린 베테랑 아이돌인데다 대부분의 음악을 작곡하는 G드래곤(지용)과 테디는 이미 그 실력을 입증받은 베테랑 작곡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버스커 버스커의 돌풍은 예외적이다.

물론 신인가수 중의 일부는 좋은 노래를 만나 바로 차트 1위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버스커 버스커는 하나의 노래가 아닌 앨범에 수록된 거의 전 곡이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래 하나만을 성공시킨 사례와는 구별된다.

### 메인보컬 좁은 음역대 불구 대중은 환호

신인이며, 아이돌이 아닌, 그리고 방송 출연이 제한되어 있는 오디션 출신의 핸디캡을 지닌 버스커 버스커가 이런 업적을 이뤄냈으니 많은 이가 관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그들의 성과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장범준(23)의 보컬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슈퍼스타K3〉 당시만 해도 장범준의 보컬은 밴드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음역대가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대중은 그의 보컬에 환호를 보냈다. '동경소녀'나 '정류장', '막걸리나', '서울사람들' 등 오디션에서 선보였던 경연 곡들은 방송이 끝난 후 음원서비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그 인기의 중심에는 장범준의 보컬에 대한 찬사가 있었다. 대중은 그의 보컬이 지닌 감성을 좋아했고, 그를 "21세기의 송창식이나 김광석과 같은 보컬"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폭발적인 고음은 없지만, 듣는 이들은 그의 보컬을 통해 편안함과 아련함을 느끼며 곡에 취해 버린다. 이런 보컬의 매력은 곡의 인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디션이 끝나고 난 뒤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활동을 줄이고 차분히 좋은 앨범을 만들어낸 전략도 그들의 성공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 '좋은 음악으로 승부' 전략도 성공 도와

이들은 밴드를 결성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보 밴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가수들은 오디션이 끝날 때쯤이면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노출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오디션이 끝나고 난 뒤 바로 방송을 이어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요계의 보편적인 성공 공식은 '이미지 노출 후 차트 점령'이다. 예를 들어 2AM은 조권이 예능을 통해서 이미지 노출을 하고 난 후 좋은 노래를 발표했고, 이 노래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마침내 스타가 되었다. 따라서 이미 '이미지 노출'이 된 오디션 출신들은 방송활동보다는 '음악'에 집중하여 좋은 노래를 들고 나오는 것이 더욱 성공가능성이 높다.

〈슈퍼스타K2〉의 우승자인 허각이 다른 방송활동은 많이 하지 않고 한동안 음악에만 집중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비해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 출신인 데이비드 오와 권리세가 예능 프로그램인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런 전략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버스커 버스커는 바로 이 공식에 충실했다. 이미지 소비를 줄이고 좋은 음악으로 승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이 모든 것과

버스커 버스커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한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고 오직 좋은 음악을 준비해 나와 성공한 사례다.

더불어서 그들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음악' 그 자체일 것이다.

이 좋은 음악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자면 바로 '가사'의 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향수가 그득 담겨 있는 버스커 버스커의 아날로그적인 가사는 장범준의 감성보컬과 결합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여수 밤바다 / 이 조명에 담긴 /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 네게 들려주고파" –'여수 밤바다' 중–

"사랑이란 /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 또 한 소년이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고 만나서 /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향수' 중–

### 아날로그적 감성이 방송출연 제약 극복

듣는 이들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가사에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노래를 느낀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여수 밤바다를 걷고 싶고, 내 여자의 향수냄새, 내 남자의 애프터 쉐이브 냄새를 맡았던, 사랑했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이런 가사는 가슴에 오랜 여운을 남기고 이 여운이 노래를 오랫동안 차트에 남아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그들은 첫 앨범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결론적으로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없는 팀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가수의 본질이 결국 음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활동 방식은 오히려 팬들에게는 감사해야 하는 일이다.

아이돌 일색의 음악계에 새로 데뷔한 이 초보 밴드가 아날로그적 감성의 아련함을 더해주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상당히 중요한 밴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G

글·박지종 (문화칼럼니스트)

##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의 미래
# 첨단기술로 상상하는 '멋진 신세계'

자동차 회사가 콘셉트카를 만들 듯이 IT 업체들도 기술 콘셉트를 공개한다. 물론 이런 기술 중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그렇다고 상상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개념이 훌륭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IT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상상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기로 하자.

마이크로소프트

### 증강현실 통해 모든 창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창과 벽, 책상 바닥 등 인간의 눈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정보를 보여 주는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창문은 평소에 투명하게 바깥 풍경을 보여 주다가 곧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변할 수 있다. 물론 원하면 아름다운 해변 사진을 보여 주는 액자가 될 수도 있다.

냉장고 문도 마찬가지다. 버튼을 누르면 내부를 보여 주기 때문에 마치 문이 투명하게 변한 것처럼 보인다. 냉장고를 열고 닫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지능형 자동차 유리창도 창에 비친 풍경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MS가 만든 시나리오 영상에 의하면 외국에 출장 갔을 때 탄 택시 유리창은 현재 시간과 위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건물 중 내일 미팅할 곳이 어디인지도 표시해 준다.

이런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한다. 위치 정보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리 데이터를 조합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여 주는 기술이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건물을 화면에 잡음과 동시에 관련 정보가 뜨는 것이다. 건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내부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 맛있는 메뉴는 무엇인지 바로 표시된다. 이전 방문자들이 남겨 놓은 평가도 빠질 수 없다.

증강현실 시스템이 현실화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정보검색을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된다. MS는 증강현실이 진화하면 비디오 광고판도 좀 더 스마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광고판을 쳐다보면 곧바로 그에게 반응하고 즉석에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상품 구입을 유도한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주문을 완료하면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MS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종잇장처럼 얇아지고 전체가 투명해질 것이라든지, 종이 잡지가 3차원 디스플레이처럼 변할 것이라든지 하는 약간 무리한 상상도 한다.

하지만 쓰기만 하면 눈앞의 모든 문자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여 주는 안경같이 만들 수만 있다면 외국 여행객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될 것 같은 콘셉트도 구현 중에 있다. 어떤 것이 실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증강현실 시스템이 현실화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정보검색을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혁신적인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지만 콘셉트 사용 시나리오에 나온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구글

### 클라우드 안경 안에 들어온 모바일 개인 비서

구글은 'Google X'란 비밀 연구소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다소 엉뚱해 보이더라도 먼 미래에 핵심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주로 기획한다.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무인자동차도 여기서 만들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시대는 스마트 기기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구글X 연구소에서는 이런 개념을 스마트 안경으로 구현했다.

'프로젝트 글래스'란 구글 프로젝트의 콘셉트 안경은 안경알을 빼고 안경테만 남긴 것 같은 형태로 눈 근처에 작은 스크린이 달려 있고 귀 쪽에는 스피커가 있다. 또한 마이크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음성과 함께 눈으로 보는 화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할 수 있다. 이 안경에는 구글의 거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집약되어 있다.

'프로젝트 글래스' 안경을 쓰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눈앞에 오늘 일정이 표시된다. 창밖을 보면 자동으로 안경에 날씨와 온도 정보가 뜬다. 식사를 하면서 상대와 통화하고 약속을 잡은 다음 이것을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날씨 등 각종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여기에 일정 등 개인 정보까지 합침으로써 안경이 완벽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길을 나서면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표시된다. 하지만 늘 이용하던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운행 중지 상태라 걸어가는 경로를 새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 모드가 된 안경으로부터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길거리 벽보의 음악 공연 광고를 쳐다보면 관련 정보가 뜨고 음성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서점 내부에서는 원하는 책 찾기를 안경이 도와줄 수 있다. 음악 관련 책을 찾으면 클라우드에 있는 서점 내부의 책 배치 정보에서 음악 섹션을 확인한 다음 가는 길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 서비스에도 거리뿐만 아니라 가게 내부를 보여 주는 기능이 있지만 아직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사물 통신이 활성화되어 건물과 상점이 자체의 최신 상태 정보를 스스로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이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애인에게 연락해 함께 감상하며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다.

안경은 또 근처의 맛있는 커피 집을 알려 주고 오늘 어떤 커피가 가장 맛있는지도 추천해 준다. 사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가장 많이 활용할 기능이다. 물론 구글과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사용자가 안경에 나타난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근처 추천 맛집을 찾아갈 때마다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어쩌면 '프로젝트 글래스'를 통해 완성한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혁신적인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지만 콘셉트 사용 시나리오에 나온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말 원한다면 결국 기술적 장애를 뛰어넘어 상품화 될 것이다.

애플

### CEO 팀쿡, '입는 컴퓨터' 회사 방문해 추측 불러

IT 트렌드를 주도했던 애플이 자존심이 상한 것일까? 구글의 프로젝트가 공개된 이후 애플 CEO 팀쿡이 입는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업체를 방문했다고 한다.

애플도 몸에 착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어디가 되었든 쓸 만한 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그만이다. IT 업체들의 열띤 경쟁이 가져올 미래를 느긋하게 기다려 보기로 하자. G

글·김인성 (IT 칼럼니스트)

AP연합

구글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글래스' 안경(사진 왼쪽)은 스마트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신개념 안경이다. 이 안경을 쓰면 날씨, 일정, 시간, 맛집 등의 각종 생활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이 하는 길 안내까지 눈앞의 스크린에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하루 동안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지난해 5월 14일 개방된 무등산 지왕봉 부근에서 등산객들이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 4월 28일 딱 하루… 무등산 정상이 열린다

##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 첫 개방… 중봉삼거리~서석대 구간

광주의 상징 무등산의 정상에 오를 기회가 왔다. 봄을 맞아 오는 28일(토) 그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무등산 정상이 한시 개방된다. 지난해 5월과 10월 개방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정상 개방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곳은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 주변이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45년간 출입이 통제되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지난해 정상을 개방했을 때는 5만여 명이 무등산을 찾아 서석대에서 군부대까지 인간 띠를 이뤄 진풍경을 연출했었다. 이러한 인기에 광주시와 공군부대는 올해도 합의절차를 걸쳐 무등산 정산을 하루 동안 개방하게 되었다.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되는 이번 무등상 정상 개방코스는 중봉 삼거리→누에봉→군부대 정문→지왕봉 일원→군부대 후문→서석대의 0.9킬로미터 구간이다. 이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군부대 정문을 통과해 부대 영내에 있는 정상까지 산행할 수 있다. 군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에는 얼굴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므로 군 관계자 안내에 따라야 하고, 특히 군사시설을 포함한 통제구역 출입 및 군사시설 촬영은 불가능하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화기물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광주시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은 "서석대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정문으로 나오던 지난해 탐방노선을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변경해 또 다른 느낌의 탐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분증 꼭 지참… 산상음악회도 열려

장불재에서는 오후 1시30분~오후 2시30분에 통기타 가수 정용주와 함께하는 산상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무등산 정상 개방에 대한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 무등산공원으로 문의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무등산 순환버스 운행이 지난 4월 21일 재개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6차례 운행되는 무등산 순환버스는 광주역~충장사~담양 남면~화순이서초교~큰재~증심사~광주역의 77킬로미터 구간을 오간다. G

글·손수원 기자

**문의** 광주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광주시 공원녹지과 ☎062-613-4210~13 무등산공원 ☎062-613-7850~52





# 천재 발명가? 금속전문가?

*조선 최고 발명가·측우기 제작자로 알려진 장영실*
*물시계 등 제작에 큰 공 세운 금속전문가로 기억해야*
*관노에서 오늘날 軍 중장 지위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지만*
*구전·문집 등 부정확한 자료로 잘못 이해해선 곤란*

지금도 세종 때의 인물 장영실을 조선 최고의 발명가라거나 측우기의 제작자 등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예전에 어떤 글에서 장영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금속전문가임을 실록을 근거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구전이나 문집 등에 부정확하게 전해 오던 자료를 근거로 여전히 장영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칫 장영실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그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가 이룩한 신분한계의 극복 때문에 우상화의 유혹을 느끼는 듯한데 그렇더라도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세종실록 15년(1433년) 9월 16일자에 장영실(蔣英實)의 승진을 둘러싼 세종과 정승들 간의 논쟁이 실려 있다. 여기에 먼저 장영실의 출신이 나온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고려 말 원나라(중국의)의 소주나 항주에서 온 중국사람이며 어머니는 (동래의) 기생이다."

이날 조정회의의 안건은 장영실의 공적을 감안하여 그를 오늘날의 장군에 해당하는 호군(護軍)에 임명하려는 세종의 뜻에 대해 정승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다. 결국 세종의 뜻이 관철돼 장영실은 기생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군의 자리에 오른다.

장영실은 출신을 감안할 때 중국어도 할 줄 알았을 것이고, 아마 그 아버지도 금속에 능한 장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던 것 같다.

일찍이 세종 7년에 장영실은 경상도 동래현 관노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미 병조에 속한 정5품관 '사직(司直)'에 오른다. 이는 장영실이 세종 때 벼락출세를 한 것이 아니라 태종 때 이미 발탁되어 금속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실록에 나온다.

호군에 오른 장영실은 이듬해(1434년) 누기(漏器)라는 물시계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다. 그렇다고 물시계 자체를 장영실이 설계한 것은 아니다. 핵심 설계구상은 세종이 직접 한 것이고 장영실의 공은 세종의 의도를 1백퍼센트 실현한 데 있었다. 그리고 이천이나 김조 같은 문신들이 세종과 장영실을 중재하며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세종은 누기를 만든 바로 다음 날에 장영실을 불러 중추원 지사 이천의 지시를 받아 책을 인쇄할 수 있는 활자를 만들 것을 명한다. 이때 만든 주자(鑄字)가 20만 개다. 이 역시 금속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금속활자를 장영실이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는다.

세종 19년에는 중국의 금속전문가들이 북방오랑캐에 포로로 있다가 조선으로 도망쳐 오자 즉각 장영실을 파견해 그들로부터 금은 제련기술을 익히도록 명한다.

이처럼 장영실의 경력은 일관되게 세종에 의해 금속전문가로 길러졌다. 계속적인 성공으로 장영실은 호군에서 대호군으로 승진한다. 당시 군 서열이 부호군·호군·대호군 상호군이었음을 감안하면 오늘날 중장의 지위에 오른 셈이다.

그런 장영실도 세종24년 4월 자신이 제작 감독한 임금의 가마 안여(安輿)가 부서지는 일로 인해 파직당했다. 그 후 장영실은 역사의 무대에서 영영 사라졌다. 지금부터라도 장영실은 발명가보다는 금속전문가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가파도의 푸르른 청보리밭 너머로 제주도의 송악산과 산방산이 차례로 보인다.

가파도 마을의 집 담장에 그려진 벽화.

## 가파도 청보리밭

# 눈이 부시게 푸른 보리밭 사이 좁다란 올레길은 하늘이 준 선물

제주의 섬들이 품은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그중 국토 최남단의 섬 마라도와 이웃한 가파도의 봄 풍경은 유난히 사랑스럽다. 제주 본섬에서 뱃길로 20여 분. 섬에 도착하면 일단 가벼운 차림새로 쉬엄쉬엄 걸어본다. 쪽빛 바다를 곁에 두고 섬 곳곳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너른 바다를 닮아 있다. 봄날의 가파도가 선물하는 바다만큼 푸른 청보리밭 풍경 속으로 마음이 먼저 걸어 들어간다.

면적 0.84제곱킬로미터, 인구 2백60여 명, 해안선 길이 4.2킬로미터, 섬의 가장 높은 곳 20.5미터. 이것이 가파도를 설명하는 '스펙'이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크기의 가파도에는 오름이나 구릉 하나 없다.

가파도에 발을 들여놓기 전, 어느 맑은 봄날 모슬포 인근의 송악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았는데 초록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던 섬이 눈에 들어왔다. 특이한 모양의 섬. 낮은 구릉 하나 없이 접시처럼 평평했으며 그것은, 마치 큰 파도가 몰아치면 잠겨버릴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한참을 들여다보니 더없이 포근해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섬 전체가 온통 초록, 초록빛이다. 바다에서 불어온 큰 바람에 섬이 일렁거렸다. 그 섬을 얼른 밟아보고 싶었다. 청보리밭이 내어준 샛길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그 바람을 함께 맞아보고 싶었다.

가파도는 1653년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 부근에서 표류돼 조선에서 14년을 생활하다 귀국 후 발표한 〈하멜표류기〉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섬이다. 〈하멜표류기〉에는 '케파트(Quepart)'라는 지명으로 소개됐는데, 이는 가파도의 옛 이름 개파도(蓋波島)가 연상되는 부분이다.

### "일몰은 와이키키 해변보다 아름답다"

가파도는 개파도 외에 개도(蓋島), 가을파지도(加乙波知島), 더우섬, 더푸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가파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1750년(영조 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 목사가 조정에 진상하기 위하여 소 50마리를 방목하면서 소들을 지키려 40여 가구 주민들의 입도를 허가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가파도가 여행자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사실 가파도는 모슬포에서 뱃길로 5.4킬로미터 떨어진 가까운 섬이지만,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가파도에 10-1코스의 올레길이 생기고, 매년 봄이면

파도가 센 가파도에서 잡히는 해산물은 그 어느 곳보다 맛나다. 해녀의 물질 작업도구가 바위 위에 놓여 있다(왼쪽 사진). 가파리 마을 길 풍경. 평화롭고 한적하다(오른쪽 위). 제주의 봄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북손과 성게비빔밥.

섬의 70퍼센트 이상을 뒤덮는 청보리밭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여행자의 발길이 부쩍 늘게 됐다. 지난봄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에 소개된 이후로는 우도나 마라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했다.

4월의 가파도는 온전히 초록이고 5월의 가파도는 온통 금빛이다. 60만제곱미터(약 18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보리밭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언덕 하나 없는 평평한 섬이다 보니 청보리밭은 더욱 넓어 보인다. 넓게 펼쳐진 청보리밭은 바다와 멀리 산방산과 그 뒤의 한라산과 이어지며, 눈은 마라도에 닿는다. 초록의 보리와 노란색 유채꽃, 장다리, 보랏빛의 갯무꽃, 여기에 검은 현무암 돌담까지 어우러진 봄의 섬은 그야말로 찬란하다.

큰 바람에 낭창낭창 허리를 굽히는 여린 청보리를 어루만지며 걷는 일은 참으로 기쁘다. 섬을 한 바퀴 도는 길이 4.2킬로미터에 불과하며 북쪽의 상동포구에서 남쪽의 하동포구까지 이어지는 올레길 코스가 5킬로미터 정도로 걷기에도 무리가 없다. 제주에 올레길을 만든 올레재단의 서명숙 이사장은 이 가파도 올레길을 향해 '지금까지 땀 흘려 올레를 걸은 도보여행자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길'이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23개의 올레길 중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와 함께 전 코스를 걸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듯싶다. 눈 시리도록 푸른 보리밭 구경 실컷 하면서 쉬엄쉬엄 걸어도 두 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여기에 다시 배를 타야 하는 상동포구로의 회귀까지 해서 섬을 두루두루 밟고 다니는 시간은 세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가파도 청보리밭 산책길은 가파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코스(2킬로미터)와 B코스(2.5킬로미터) 두 가지가 있다.

B코스는 해안도로와 연결돼 있어 마라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워낙 작은 섬이라 어떻게 걸어도 상관없지만, 일단 선착장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파도 올레길 10-1코스에 진입해 가파도 전체의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돌아본 다음 청보리길 A코스를 거쳐 전교생이 달랑 네 명뿐인 아담한 가파초등학교를 지나 B코스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다.

## 섬은 좁지만 바다는 풍성… 해산물 한상 가득

1박을 하게 된다면 동동리 쪽 해변과 하동항에서의 일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는 "이곳의 일몰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일몰보다 더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오름을 숨 가쁘게 오를 일도, 대여섯 시간씩 셔츠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걷지 않아도 좋은 가파도가 더 좋아지는 이유는 바로 맛있는 음식들 때문이다.

마라도나 비양도 등 제주의 다른 섬과 달리 땅이 평탄해 농사가 가능했고, 제주도 최고의 낚시 포인트답게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며 가파도의 해녀들이 매일매일 건져 올리는 해산물이 최고로 맛있는 곳이 바로 가파도다. 다른 섬들보다 유독 먹을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다.

가파도보다 훨씬 유명한 마라도는 해물자장면 하나로 맛 지도를 완성했고, 비양도는 보말죽이 대세를 이룬다. 하지만 가파도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맛난 음식이 많다.

향긋한 성게비빔밥이나 손칼국수는 기본이요, 가파도의 특산물을 죄다 한 상에 모아놓은 보리밥정식, 이러저러한 해물이 한 접시 위에 푸짐하게 등장하는 해물모듬조림과 구이, 무늬오징어로 만든 다양한 요리와 뿔소라와 보말을 굽고 무치고 버무려 만든 각종 음식까지. 〈1박2일〉에서 '용궁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던 가파도의 먹을거리들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해녀가 물질해 온 성게나 조개, 소라, 보말, 톳, 미역 등 자연산 해산물과 어민들이 잡아온 제철 맞은 자연산 활어로 만든 요리들은 미식가의 혀를 춤추게 만든다. 흔한 보리밥정식을 시켜도 상큼하게 묻혀낸 보말무침, 소라무침, 톳을 넣고 끓인 된장찌개에 미역쌈, 홍삼회와 문어숙회, 비린내 하나도 나지 않는 생선국까지, 일일이 열거하자면 손가락 열 개를 다 써도 모자랄 밥상이 펼쳐진다.

툭 건드리면 피부의 색깔이 요란하게 변하는 무늬오징어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낸 라면도 이 섬에서 맛볼 수 있다. 나선형의 몸통에 삐죽삐죽 솟은 뿔을 달고 있는 뿔소라 구이는 어떠한가.

제주 전역에서 뿔소라가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가파도의 소라구이는 그 맛이 또 다르다. 소금 두껍게 깔고 뿔소라를 한 접시 가득 내주며 소박한 불 쇼까지 보여주는데, 이 섬의 뿔소라는 달고 부드러우며 쫄깃하고 향기롭다. 가파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뿔소라 젓갈도 맛나다.

늦은 봄이 되면 성게비빔밥이나 성게손칼국수도 빼놓을 수 없다. 산뜻하면서도 끝 맛이 달고 향이 좋은 성게 알을 실하게 올리고 온갖 야채를 넣어 새콤한 초고추장에 비빈 성게비빔밥이나 뜨끈뜨끈하고 속 깊은 맛의 국물에 잘 반죽해 총총 썰어 넣고 팔팔 끓여낸 성게손칼국수는 도무지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없는 맛이다.

## 세계 최초로 탄소 제로 섬에 도전

가파도 대부분의 민박집이나 펜션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섬 아낙들의 손맛을 볼 수 있다. 하동포구의 해녀촌은 막걸리 한 잔에 소라구이 한 접시 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기에 딱 좋은 곳이다. 가파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 언제까지나 푸른 청보리밭의 섬일 것 같은 가파도가 더 파랗게 변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섬으로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식목일을 시작으로 2백60여 명의 가파도 주민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섬에 나무를 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황근과 까마귀쪽나무 등 해풍에 강한 나무들이 해안선을 따라 하나 둘씩 심어지고 있다. 탄소 없는 푸른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가파도의 화력발전기는 모두 풍력 발전기로 대체될 예정이다. 섬 내의 1백30여 모든 가구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갖춰지고 주민들의 차량도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

여행자들은 지금까지 그랬듯 가파도를 찾을 땐 오로지 여유로운 마음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아름다운 섬 제주가 품은 멋진 섬 가파도의 봄날이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말이다. G

가파도 상동포구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마라도 가는 길목에 있지만 배편은 훨씬 적다. 모슬포항에서 20분 거리. 하루에 4번 모슬포항에서 가파도행 여객선이 운항하며 마지막 배는 오후 4시에 있다. 가파도에 도착한 배는 곧바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모슬포행 마지막 배는 오후 4시20분에 있다. 가파도까지 가는 바다는 험하기로 유명하다. 바다 날씨에 따라 배 시각이 달라지니 사전에 배 운행 여부와 시각을 확인해야 한다. 모슬포항까지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화로(1135번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모슬포에서 가파도까지의 왕복운임요금 어른 8천원, 어린이 4천원. 여객선 **문의** ☎064-794-5490

**먹을 곳** 민박, 펜션과 음식점을 같이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섬의 특성답게 싱싱하고 푸짐한 해산물 요리가 미식가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가파도 올레민박집의 해녀 할망이 손 반죽해 끓여주는 성게칼국수, 보말칼국수도 인기다. 〈1박2일〉에서 '용궁정식'을 선보였던 상동선착장 앞 가파도 **바다별장**(☎064-794-6885)은 올해 초 주인이 새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보말칼국수나 성게국수, 생선조림과 뿔소라구이, 젓갈 등 다양한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선착장에 내리면 곧바로 식당 예약부터 하는 게 좋다. 대다수의 여행자가 바다별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잠잘 곳** 가파도 내에 펜션과 민박집이 여러 곳이다. 민박집과 펜션은 3만~4만원 선(비수기 2인 기준)으로 성수기에는 조금 인상될 수 있다. **상동펜션**(www.gapadosangdong.com), **블루오션펜션**(www.gapadopension.com), **가파도민박**(☎064-794-7089) 등이 있다. 모슬포항 인근에서 숙박하며 가파도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이 밀집된 중문 관광단지에서 모슬포항까지는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즐길 거리** 지난 4월 21일부터 시작된 2012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오는 5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지난해까지 4월 중 사흘간만 진행되던 청보리 축제에 여행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몰리면서 축제기간을 대폭 늘린 것. 축제의 주무대인 상동항과 섬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청보리밭 걷기, 나도 가수다, 보말까기대회, 청보리 염색체험 등 다양한 관객참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여행정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064-760-3942
**대정읍사무소** ☎064-760-4086 | **가파리사무소** ☎064-794-7130

## 〈세상의 모든 거북이들에게〉

# 보통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로버트 링거 지음 · 최송아 옮김
예문 · 1만3천5백원

"경고한다. 비위가 약한 사람에게 이 책은 위험할 수 있다.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경험마저 상기시킬 수 있다. 이제, 책장을 넘기기 전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놓고 신경안정제를 준비하자."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협박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1973년 미국에서 초판이 나온 이후 세계적으로 1천만 부가 팔린 스테디셀러다.

이 책은 가식을 몽땅 벗어 던진다. 부동산중개업자로 출발해 백만장자가 된 저자는 "사회는 유치원 놀이터가 아니라 정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른바 '성공학'을 다룬 책들은 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왜냐하면 현실을 그대로 담은 책은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건 대단히 숭고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긍정을 종교처럼 믿으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같은 금언은 내다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거북이는 뭔가. 유명한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그 거북이다. 특출하거나 인상적인 타입은 아니지만 한결같은 태도와 강한 인내심, 오뚝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 보통 사람들이다. 대신 이 거북이는 우직하게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가 한눈팔기를 기다리고, 토끼가 오른쪽으로 돌아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앞질러 가는 '영악한 거북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 세상엔 '나쁜 놈'뿐… "자기 몫을 제대로 챙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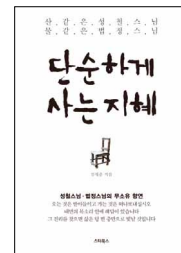
저자는 정글의 세계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당신의 돈을 빼앗겠다고 나서는 사람(노골적으로 나쁜 놈), 당신의 돈에는 관심 없다며 실제로는 돈을 노리는 사람(음흉하게 나쁜 놈), 마지막으로 좋은 의도로 당신에게 접근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착하지만 나쁜 놈)이다. 결국 정글에선 모두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 저자는 우선 현실에서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독자들에게 성공비결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는다. '발등을 찍어라, 찍히기 전에' '상대방의 애간장을 태워라' '원하는 금액을 유도하라' '반드시, 서명을 받아 내라' '사람은 가지기 어려운 것에 더 끌린다' '허풍의 칼날을 역이용하라' 등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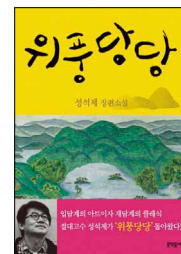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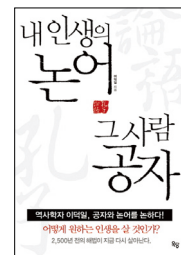
### 단순하게 사는 지혜

김세중 지음 | 스타북스 · 1만원

성철 스님 탄생 1백주년, 법정 스님 서거 2주년 기념 출간작이다. 두 어른이 남긴 지혜를 만남, 고요, 하나됨, 비움,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나눠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두 스님의 일화와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자 했다. 생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신 두 어른에게서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스님의 모습을 담박한 어조로 서술해 종교를 뛰어넘은 지혜를 읽는 이의 내면에 스며들게 한다.

### 위풍당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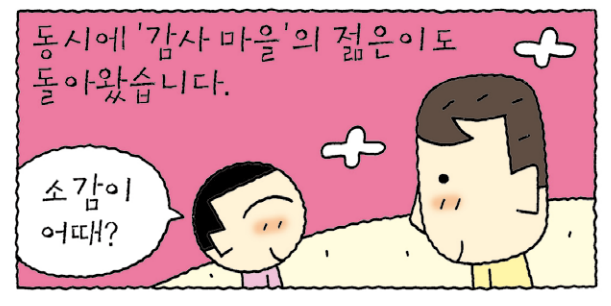
성석제 지음 | 문학동네 · 1만2천원

시골마을을 얕잡아보고 쳐들어온 도시의 조폭들과 마을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일전을 담았다. 맹랑한 소동극의 형식을 빌려 재담과 익살을 펼친다. 마을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진다. 웃음 뒤에 숨은 우리 사회가 처한 도덕적 파국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부정한 권력에 저항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충동이 이야기 안에 녹아 있다.

###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

이덕일 지음 | 옥당 · 1만7천5백원

역사학자 이덕일이 '공자'와 〈논어〉에 대해 논한 책이다. 저자는 공자의 일생과 춘추시대 역사를 따라가며 〈논어〉의 의미를 되새긴다. 〈춘추좌전〉 〈공자가어〉 등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자의 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새로운 관점의 해법을 제시했다. 풍부한 사진과 그림 등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공자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 불평마을 감사마을

글과 그림 · 최영순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 안에 무덤을 한 삽씩 파 들어가는 것이다. - R.라이트(미국의 소설가)

2012 창의과학 페스티벌에서는 과학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 난 에디슨, 넌 아인슈타인 사이언스야 놀자!

〈2012 창의과학 페스티벌〉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012 창의과학 페스티벌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5월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성대한 과학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과학희망나눔 행사 '사회배려계층 초청 과학캠프', 특별전시 〈신비의 파라오 투탕카멘〉 〈특수효과 기획전〉 등이 있다.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식물복제, 유전자 재조합 등 생명공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꼬꼬마 생명과학자 프로그램' 등도 있다.

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사회배려계층 초청 과학캠프'는 과학문화 체험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배려계층 아이들 1천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날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문, 동시, 만화 등 순수 아동창작 백일장 대회 '제35회 전국 어린이 건강 글짓기 대회'가 열린다. 아동문학가 선생님 20여 명을 초대해 '올바른 책읽기 습관과 글쓰기'에 대한 상담코너도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천체 투영관을 활용한 천체영상 상영과 함께 전문가 강연 및 공연이 결합된 〈과학토크콘서트〉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야외 과학문화광장에서는 꽃게걸음 자전거, 2인승 커플 메뚜기 자전거 등 캐릭터 자전거 1백대를 즐길 수 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을 맞아 대부분의 행사를 주말 또는 주말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험수요를 만족시킨다.

정리·박은지 인턴기자

**일시** 5월 13일까지 **장소**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문의** ☎02-3677-1500

## 박람회 2012 고양국제꽃박람회

2012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입구에서부터 '컨티넨탈 올림픽 가든', '한민족 꽃 평화정원' 등 다채로운 전시가 이어진다. 1만2천대의 무료 주차장을 제공하는 한편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일시** 4월 26일~5월 13일 **장소** 경기 일산호수공원
**문의** ☎031-908-7750~4

## 축제 제14회 함평 나비대축제

제14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12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야외 나비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다. 축제기간 중 열리는 함평5일장에서는 각종 공연과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5월 7~8일에는 세계축제도시 선정을 위한 국제세미나도 열린다.

**일시** 4월 27일~5월 8일 **장소** 함평엑스포공원
**문의** ☎061-320-3349

## 4월 셋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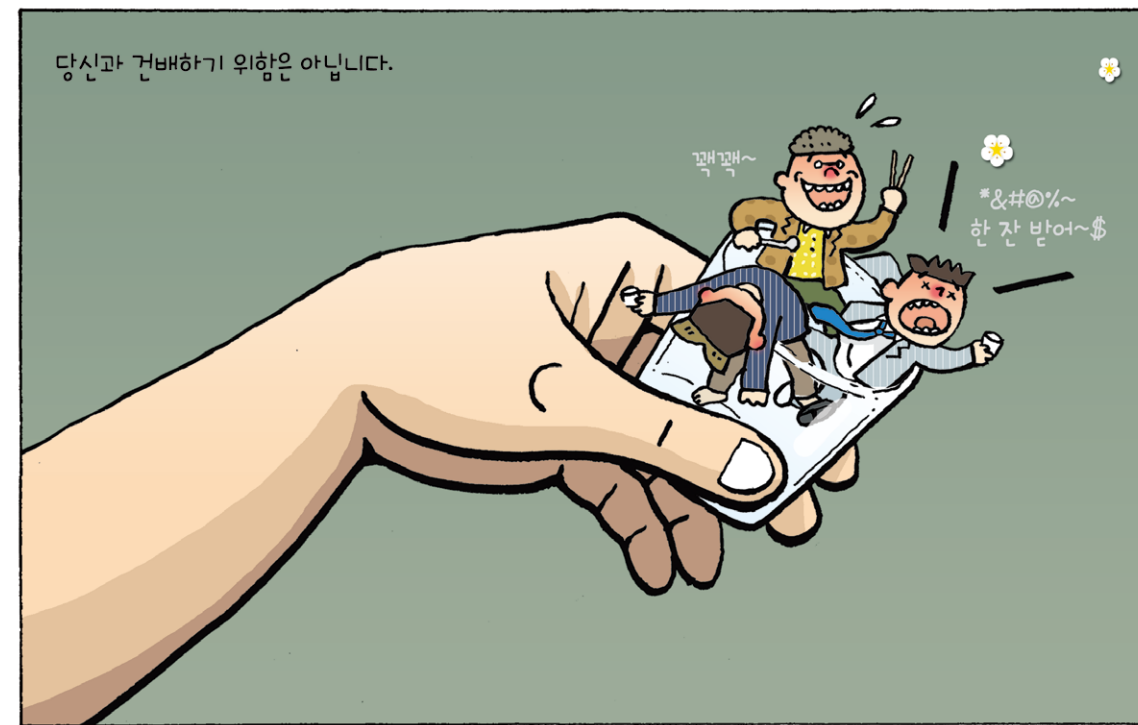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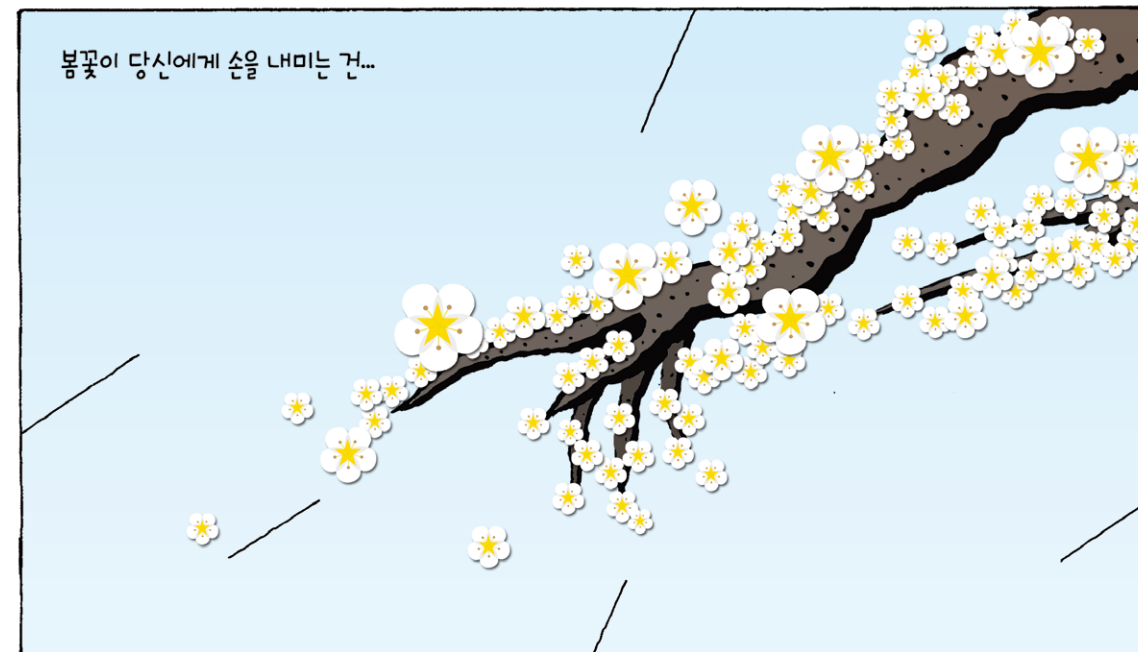
4월 8일~4월 14일

| | 곡명 | 가수 |
|---|---|---|
| 1 | 벚꽃 엔딩 | 버스커 버스커 |
| 2 | Volume Up | 포미닛 |
| 3 | 그리고, 남겨진 것들 | 넬 |
| 4 | 나혼자 | 씨스타 |
| 5 | 첫사랑 | 버스커 버스커 |
| 6 | 여수 밤바다 | 버스커 버스커 |
| 7 |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 허각 |
| 8 | 사랑은 다 그런거래요 | 양파&다비치&HANNA |
| 9 | 미치게 보고싶은 | 태연 |
| 10 | 꽃송이가 | 버스커 버스커 |





# 반갑지 않은 손님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는 제발 참아주세요.

# 4월엔 지구에 나무 한 그루를

대관령 산골짜기,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는 내 월급은 80여만원이다. 한 달치 식량으로 쌀 10킬로그램과 자반고등어 두어 손 사고 나머지 돈을 몽땅 털어 꽃나무 묘목 1백그루를 산 적이 있다.

식목일 아침, 어린이들이 한 그루씩 들고 갈 수 있도록 뿌리 부분을 정성껏 신문지로 감았다. 고물 자동차 옆좌석, 뒷좌석, 트렁크에 나누어 싣고 인근 마을 학교로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었다. 성산초등학교 전교생 91명 중 제 손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4~6학년 어린이들에게 51그루, 왕산초등학교 전교생 20명에게 20그루, 고단분교 전교생 5명에게 5그루, 그리고 왕산중학교 전교생 13명에게 각각 2그루씩 26그루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 묘목을 집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의 손으로 앞마당에 심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정성껏 돌보며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겠지만, 여러분과 오늘 내가 나누어 준 묘목들은 우람하게 자라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중에 누군가는 또 나처럼 월급을 몽땅 털어 묘목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밀린 숙제 같던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박봉의 월급을 털어 꽃나무 묘목을 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 꽃 꺾는 것을 말렸더니 "문구용 풀로 붙여 놓을게요"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심성이 황폐해져 가는 듯해 우려되는데, 어른들 사는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나무같이 말 한마디 없으면서 묵묵한 행동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위인들보다 가까운 마을 어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보았다. 산골체험 하러 온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 조그맣고 예쁜 손으로 개나리꽃을 똑똑 따서 날려 버리는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서둘러 말렸더니 한 어린이가 하는 말에 섬뜩해졌다. "문구용 풀로 다시 붙여 놓을게요." 흙장난하며 노는 일보다 아스팔트 길을 걷고,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 꽃을 피우는 일에 더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은 어려울지 모른다.

*어린이들에게 돼지저금통을 털어 작은 화분 하나 사서, 볕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물을 주며 자기 손으로 정성껏 가꾸도록 권하고 싶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차단되었던 자연과의 교감이 회복되어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어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아껴 모은 돼지저금통을 털어 작은 화분 하나 사서, 볕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물을 주며 자기 손으로 정성껏 가꾸어 보면 어떨까.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차단되었던 자연과의 교감이 회복되어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살아보니까 '조금'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말도 없다. 조금씩 흐르는 실개천이 모여 큰 강을 이루어 낸다. 어떤 이는 조금이니까 괜찮다며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어떤 이는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지구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4월이다. 퇴근길, 종이컵에 담은 커피 대신 작은 화분 하나 사서 가슴에 꼭 안고 가는 그대 모습이 보고 싶다.

글 · 유금옥 (시인)